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공평과 화평을 이루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아모스 5장 23, 2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8월 29일 (토) 제 1791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시위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

CT, 포틀랜드 시위 참가와 기도운동으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 소개

오리건주의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다른 도시에서 처럼 평화적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내 대부분의 도시에선 항의 시위가 6월 중순 이후 잦아들었으나 포틀랜드에서는 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과격파 시위대가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며 폭력, 방화, 공공건물 파괴를 벌였다. 이에 트럼프가 연방요원을 투입했지만 주 정부와 시 정부는 이에 반대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포틀랜드의 시위는 연방요원 투입을 계기로 더욱 격렬해졌다. 연방요원들이 소속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동원해 강제로 시위대를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들은 또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시위대에 발사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포틀랜드 시위대를 "폭력배" "무정부주의자"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 정부 관리들은 평화적 시위대와 소수의 말쑥한 시위대를 구분해야 한다고 연방요원 투입이 오히려 말쑥한 시위대에 명분을 주고 시위 전체를 과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포틀랜드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은 참여 방법과 참여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많은 사람들이 흑인의 삶을 옹호하는 데 깊이 신경을 쓰지만 시위는 복잡하고 참가자의 목표와 전술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Black Lives Matter"를 외치는 그룹의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인 유행병의 한가운데서 크리스천들도 항의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중에 합류하지만 이러한 싸움의 도덕적 모호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된다. 이 혼돈의 순간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는가?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포틀랜드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도시를 대신해 "정의를 행하라"는 성경적 지시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Portland Is Still Protesting. Where Is the Church?: Christian leaders weigh when and how to engage in the city's mounting clash over racial justice).

항의

아프리카계 에릭 녹스 목사는 지난 6월부터 도시 전역의 시위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인 HOLLA를 통해 멘토링하는 아이들과 합류했다.

녹스는 "약 한 달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되찾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기 위해 그 불꽃을 부채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경쟁하고, 체계적인 억압에 대처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의 잔인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틀랜드 시위자의 대다수가 평화롭지만 녹스는 폭력적인 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즉, 연방요원에게 돌과 폭죽



을 던지거나 법원 옆에 낙서에 "Die Pigs"를 낙서하는 종류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의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능가한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가난하고 악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가장자리 즉 억압에서 시작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사회는 현재 백인우월과 권력과 제국으로 봉합된 기독교를 믿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가 전국 평균(13%

에 비해 6%)의 절반도 안 되는 포틀랜드에서는 백인 크리스천들이 흑인 운동가들이 이끄는 시위와 시위에 동참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아버지는 최루탄을 밀어내기위해 일사구를 들고 다닌다.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 고무 탄환으로부터 보호한다. 엄마들은(the "Wall of Moms") 노란색 옷을 입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의 시위에 참석한다.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나 엄마 부대는 백인 여성으로서 포틀랜드의 흑인 이

웃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위에 참가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기도

포틀랜드 크리스천은 지역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똑같은 욕구를 공유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포틀랜드 외곽에 있는 오리건 주 그레섬에 있는 이스트힐교회의 아프리카계 목사인 키스 켄킨스는 최근 시위에 참여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시위의 모든 아이디어는 문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경험에 대한 불의와 불평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에 있을지, 정책과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후방에 있을지를 선택해야 했다"고 고민했다. (3면으로 계속)



KAPC 총회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이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시작 첫 강의 송태근 목사 "Why에서 What으로"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이 8월 18일 오후 5시(동부시간 오후 8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 포럼은 4주간에 걸쳐 매 화요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18일: 송태근 목사(서울 삼일교회) "Why에서 What으로" △8월 25일: 정민영 선교사(GBT 공동대표, WBT 국제 부총재) "팬데믹 시대의 도전을 변화의 기회로" △9월 1일: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 "목회자의 독서와 말씀 묵상" △9월 8일: 김병훈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시대적 과제로서 교회론의 재정립"

박성일 목사 사회, 조문휘 총회장 기도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이윤석 목사가 강사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 소개를 했다.

송태근 목사는 "목회학은 목

(9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푸른초장 김중국 목사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상급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지우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2020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접수마감 : 2020년 9월 4일(금) 오후6시
2.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퀵스장로교회 내 2층)
3. 입학시험 : 2020년 9월 5일(토) 오전11시
4. 개강부흥회 : 2020년 9월 8일(화)~9월 10일(목)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718-463-7163
학감 허윤준 목사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우째 이런 일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반려동물을 키우는가? 얼마 전 조카가 아이들 등쌀에 못 이겨 강아지를 편도 7-8시간 운전하여 가서 샀는데 3,700불이 들었다고 한다. 앞으로 키우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것이다. 교회 어느 집사님 개는 미용(?) 한 번 하는데 70불이 든다고 한다. 나는 머리 커트하고 샴푸에 팀까지 포함해도 30불이면 된다. 그래도 개는 키우는 보람이 있는 것을 본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인을 따라다니니까. 나는 개도 고양이도 안 키우지만 고양이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심방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는 되게 도도(?) 하다. 사람 눈치를 별로 안보는 것 같다. 걷는 것도 마치 그 집에 주인이라도 된 듯이 거만하게 걷는다. 고양이를 키우는 묘미도 있겠지만 그 묘미를 잘 모르는 내겐 주인 행세하는 고양이를 보고 "우째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사람들은 명품을 열광한다. 명품을 부러워하고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명품뿐이 아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 그 상품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탐심은 사람들에게서 조금도 멈추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싸움도 살인도 불사한다. 도대체 누가 그 명품과 상품을 만들었는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들이 사람의 주인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만든 상품의 종이 되는 것, 자본주의가 어리석게 빠지기 쉬운 탓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더 심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물주의(唯物主義)는 신이 없다는 사상이 아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물질만을 신으로 강력하게 섬기는 패역한 사상이다.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우째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또는 그 곁에 사회주의가 있다. 사회주의는 도덕주의를 앞세워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집단의 사상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런 제도장치나 기준이 없는 사회주의의 알량한 도덕(Moral)은 결국 추해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양산해 낸다. 그런 이념에 포로가 되고 종노릇 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악한 열매를 보면 "우째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바울도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겠느니라"(행20:28). 교회는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거하시는 곳이다. 자본주의에서 일탈(逸脫)한 변영신학(變榮神學)이 교회에서 주인행세하려는 시도가 적잖이 있었다.

공산주의는 또 어떤가.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가 왕이나 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것을 해방이후 지금까지 무수히 보아온 바이다. 물론 한반도 옆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를 향한 만행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결코 지나친 폄하는 아닌데 칼 마르크스의 책을 비롯 몇 권 책을 읽고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세상 문제를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성토했던 사회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자, 온갖 이유를 들어 교회를 이리저리 흔들고 괴롭히고 조정하려는 눈뜨고 못 볼 행태가 도처에 있다. "우째 이런 일이..."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좋은 종답게 살자.

팬데믹 이미 가던 미래로 이끌어나가는 타임머신

이틀란틱, 데렉 톰슨기자의 '팬데믹 시대 미래 변화' 에 대한 3가지 예측 보도

지난 3월 기술, 금융, 미디어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산업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4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원격근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약 20만 명의 직원이 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10년 안에 페이스북 직원의 절반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리라 전망했다. 트위터는 직원들이 영원히 집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큰 기업들이 원격근무를 받아들여면서 고소득 일자리와 비싼 주택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슈퍼스타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월세가 폭락하고 있으며, 뉴욕의 사무실들은 여전히 비어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 맨해튼 도심의 집을 떠나 외곽의 집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통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가 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이후부터 일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TV, 지역신문, 백화점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대면경제가 축소되면서 일터와 가정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원격근무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노동자 6명 중 1명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최소 이들은 공유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랜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업워크(Upwork)는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에 직원의 5분의 1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도심의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슈퍼스타 도시 바깥에서 원격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점진적이더라도 점점 확산하면서 뜻하지 않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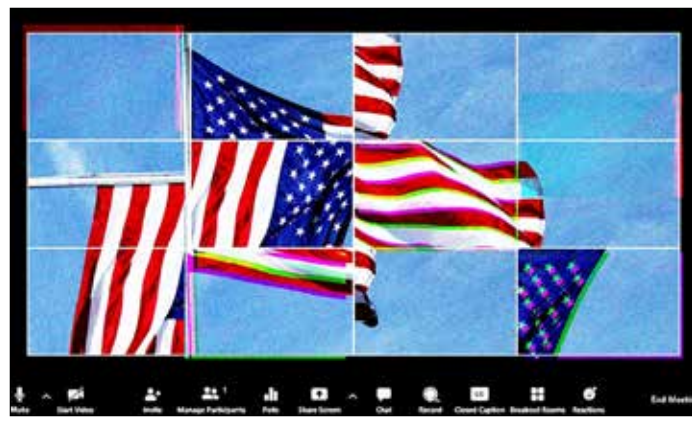
원격 근무가 경제, 노동, 정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해 본다. 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게 이뤄지고 종종 틀리기도 한다. 따라서 2회에 걸쳐서, 각 파트의 마지막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언급할 것이다(The Workforce Is About to Change Dramatically: Three predictions for what the future might look like).

1. 원격근무(Telepresence) 혁명이 미국 노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2000년 이후 여행, 음식,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식당, 호텔, 놀이공원을 포함한 레저 및 숙박 분야 고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3배나 빠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MIT의 미래의 직업(Work of the Future)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인 데이빗 오토(David Autor) 교수는 세 분야의 일자리 호황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MIT의 엘리자베스 레이놀즈(Elisabeth Reynolds)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에서 "텔레프레전스"라 부르는 원격근무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이에 따라 레저, 숙박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출장이 10~20% 감소한다면 항공사, 호텔, 식당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게 된다. 오토 교수는 "직원들은 출장기간 레저와 숙박 분야에 많은 지출을 합니다. 평일에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정상요금



업체들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매점의 고용이 감소했다. 이와 유사하게, 원격근무 혁명은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의 통근에 따라 도심 근무지에서 유발되는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미국에서 대략 3천만 명이 종사하는 식당, 교통, 빌딩과 부지의 유지 관리 분야가 해당된다.

예측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원격근무 혁명을 반박

원격근무로 노동시장 변화 프리랜서 기업가 정신 확산 대도시 탈출로 정치지형 재편

을 모두 지불하고, 비행기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비용을 냅니다. 또한, 리무진과 호화로운 식사에 법인카드를 이용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오토 교수는 도심 지역의 자영업,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전망한다. "우리 대부분은 주중에 집에서 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도시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게 되죠. 다시 말해, 평일에 회사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덜 먹게 되고, 해피아워에 바에 가는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도 줄어듭니다. 빌딩 청소, 보안, 유지관리 서비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소매업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소매업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

하는 가장 합리적인 논리는 인간이 습관의 동물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와 여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업워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담 오지맥(Adam Ozimek)은 "지난 80년간 부유한 사회일수록 여가와 주거에 더 많이 지출해왔다"고 분석한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대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www.chpress.net
광고문의: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식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Medicare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내 - 치아시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위 한복판에서 복음을...

(1면에서 계속)
 쟁킨스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것처럼 그레섬 시장은 그와 함께 시정 및 경찰국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른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초대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쟁킨스 목사는 여러 지역교회와 함께 포틀랜드 시내를 통과하는 "비정치적" 기도 산책을 조직했다. 아침 공기에 최루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법무부와 법원에 손을 얹고 경찰관과 시위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도시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외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포틀랜드 시위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교인들로부터 내가 들

는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조직으로서의 'Black Lives Matter'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며, 오늘 날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원칙에 따라 시위해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과잉집압이나 안티파들이 주장하는 문제들까지 뒤엎겨 시위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산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그는 강조한다.

쉬운 해답은 없다!

시위의 폭력적 양상을 싫어하는 크리스천들은 포틀랜드 다운타운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평화롭고 가족 친화적인 행진과 집회를 조직했다.

통일된 메시지의 부재나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시위의 능력에 회의적인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는 자기 검토했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적 정의에 관한 북 클럽을 시작하고, 인종화 된 폭력의 미국의 유혈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만약 시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도 미국사회는 여전히 변곡점에 있으며, 포틀랜드의 경험은 이제 막 시작된 국가적 대화의 축소판일 수 있다.

선명하고 단순하게 이야기가 풀려나가기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포틀랜드 시위가 그 증거다. 바로 여기에서 이웃을 잘 사랑하고자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쉬운 답이 없

다.

전통을 넘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나온 시위자들이나 시위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시위자들이 벌이는 이 싸움에, 밤마다 최루탄이 거리에 남아있는 도시의 모습은 훨씬 명확하지 않다. 크리스천은 여기에 아파해야 하며,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아가야 한다. 정말 크리스천들이 시위에 충실하게 참여하려면 동시에 영감을 주고 격분하고 세상과 다르다는 씨름을 나가야 한다!

팬데믹 이미 가던 미래로...

(2면에서 계속)
 만약 원격근무에 따라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과 같은 부유한 대도시에서 더 작고 소득이 낮은 도시로 이주한다면, 대도시의 고용과 경제는 줄어들더라도 이주민이 유입된 지역의 식당과 상점들은 성장하게 된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 출장과 대면 회의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오토 교수가 주장한 요지는 설득력이 높다. 팬데믹의 여파로 원격근무가 확실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소매업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대규모 상업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십 년 동안 직장은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커뮤니티가 된다. 종교모임, 볼링 리그, 노동조합 등 다양한 모임들이 해체되는 가운데, 25세-55세의 성인 대다수가 거의 매주, 거의 매일 찾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원격근무가 급작스럽게 확산하면서 여러 기업은 변화한 환경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서둘러 바뀌어야 했다.

관리자들의 원격근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놀랄 만큼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끔찍할 정도로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관리자들이 거짓말 탐지기로 직원들을 심문한다면 대다수는 그들의 직원들이 과로와 생산성 저하, 감정 고갈, 감정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일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지만 사람들이 더 외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말로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많은 노동자가 동료들과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관계도 변했다. 사무 직종의 기업은 줌(Zoom)의 온라인 채팅 그룹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구글의 전 엔지니어이자 기업 컨설턴트인 빌 듀엔(Bill Duane)의 표현처럼 일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온라인 소통은 상호이해의 지뢰밭일지도 모른다. 의미 없어 보이는 사무실의 일상적인 상호관계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료들과 그런 관계가 없다면 친근하지만 귀찮은 직장의 동료들은 성가시거나 주위의 여러 사람 중 하나로 격하될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면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약화하고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이 늘어난다. 직장 상사와 동료의 슬랙 메시지만큼이나 링크드인,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맺는 관계가 가까워진다.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는 점점 약해지고 직장 밖의 다른 근무자들,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이 더 강해진다.

직장 내의 관계가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을 체감할수록, 더 많은 직

원은 부업을 하거나 심지어 창업할지도 모른다. 원격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열의에 찬 엔지니어, 미디어제작자, 마케터, 홍보담당자는 회사에서 독립해서 자기 일을 찾으려 한다. 어느 순간 거실을 둘러보고는 '난 혼자 있으며, 이 상황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 존재론적 불안이 자극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원격근무가 엉망이라고 판단한다면 IBM이나 야후가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원격근무 체제를 끝낼 것이다. 재택근무의 전환을 발표한 유명한 테크 기업들이 불과 7개월 전까지 사무실에 최고급 시바, 요가 연습실, 마사지사실을 갖춘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원격근무가 문화적인 유대를 약화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급하게 복귀할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페이스북은 재택근무 발표 뒤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이번 주에 73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미드타운 맨해튼 사무실을 임대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희생양이 된 한국교회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의 삶의 전 분야에 대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현 한국의 집권세력이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했던 지난 4.15총선에서 역대 최고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 승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치의 결과라 아니라 무능하면서도 편 가르기와 내편 챙기기, 공공연한 내로남불, 선전과 선동에는 달통한 현 집권세력이 초기 방역대응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 봉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어려울 이룩한 방역의 결과를 자기들의 것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데다, 역병에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난지원금을 선거직전 전 국민에게 살포한 결과였다.

집권세력의 방역실책은 이번에 또다시 자행되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현상이 8.15 광복절 전에 이미 교회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거의 해결된 것처럼 선전하면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여 15-17일 삼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휴가지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야외로 해안으로 휴양을 즐기면서 마음 놓고 대면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독려까지 하였다. 이것은 방역당국이 경고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책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있다. 그들은 그 결정적 명분을 광화문 집회에서 찾았다. 광화문 집회는 사실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며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의해서 단독 개최된 것은 아니었다. 현 집권세력에 불만을 가진 반정부적 일반 시민들과 교인들 및 NGO단체들과 그 회원들, 친정부적인 민노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이때 모인 반정부적 세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전광훈 목사의 주도에 흡수되어 공동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와 그의 교회, 더 나아가 전국 교회를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반면, 불과 그들과 500여 미터 거리에서 2000여 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 민노총 집회 참석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이 편파적으로 유독 개신교회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실정과 실책, 이로 인한 민심이반을 만회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책략이며 흡수이고, 그 이면에는 이미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체제혁명을 보다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술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현 집권세력은 대통령을 필두로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선호하며 이를 미래 통일 한국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좌파정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국제정치학 원로학자인 노재봉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그간의 한국의 정체성인 법의 통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는 전체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구조론을 비롯한 공산권의 실패한 체제이었던, 아직도 중국과 북한 등은 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기독교는 이러한 전체주의가 얼마나 반하나를 말하며 교회를 말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체제임을 경험하였으므로 한국개신교회 특히 보수적 교단은 교단을 초월하여 좌파의 전체주의 지향에 순교적 각오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음적이며 보수적인 개신교회는 현 집권세력의 좌파세력의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현 집권세력을 형성하는 이들이 학생데모를 주도할 때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 집권세력의 방해꾼이고 눈의 가시이다. 이를 극복하고 제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숙원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온 세력에 칼을 휘두르며 저항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교회에게 성령과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고 복음 전파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러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하고도 지혜롭게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 이때 교회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살하는 빌미와 명분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전광훈 목사와 그 교회의 행태는 우리들의 훌륭한 반면교사이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모국 교회가 이 도전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모국 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는 도를 같이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 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 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 후 POWER POINT와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사: (917) 588-2934 / (917) 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 588-2934, (917) 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제미나연구원 원장)

향취로 목욕하다

친구의 선교관이 있는 곳은 이태리 북서쪽에 있는 피에몬테(Piemonte)지역이다. 그곳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기원전 100년 전부터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다. 명동 같은 곳은 평당 몇 억이었는데 이곳은 갈

은 땅인 데도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굳이 비교한다면 시이저와 로마 병사의 차이 정도?

그 대지는 많은 나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라는 곳이다. 그런데 메인(main) 건물 바로 앞에 아름답리 향나무가 비스

듬히 자라고 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무거운 가지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삶을 포기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무겁게 자란 가지들을 쳐내기로 했다.

친구가 이미 가지들을 일부 쳐낸 상황이었다. 그래서 객기(해병대에서 익힌)가 발동하여 내가 나머지를 자르겠다고 나섰다. 대신 사다리를 꼭 잡으라고 당부했고. 마침 높은 가지를 자르기 위해 4-5m길이의 대 끝에 전기톱이 달려 있어 그것을 자르려는 가지에 올려놓고 손잡이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톱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지들을 쳐낼 때마다 향나무는 아름다운 향취로 주변을 물들인

다. 향취를 맡으면서 문득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6.25사변 때 돌아가심으로 삼촌이 기일이 찾아올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시곤 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종지에 화뿔불을 한줌 가져와 그곳에 마른 향나무 토막을 가늘게 깎아 종지 불에 넣으면 신비스런 연기와 함께 향내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향취는 절간에서 나는 향취 같았다.

5미터 높이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톱이 달린 장대(?)를 높이 들어 자르려는 가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기다렸다는 듯 잘라지는 톱밥이 인정사정없이 얼굴로 돌진해왔다. 마치 쏟아지는 함박눈처럼 말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말이다. 안경을 썼기 망정이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물러날 수 없기에 계속 진행했더니 갑자기 따박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가지가 사다리 꼭대기로 불안하게 서 있는 나에게 삼시간에 걸쳐 떨어졌다. 예상외로 무거운 가지의 무게로 인해 사다리는 기우뚱하며 쓰러지려고 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생면부지의 로마 놀이 찾아와 자신의 팔을 자르니 분노가 일었나 보다. 마침 아래서 친구가 사다리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무성한 가지가 내 운명을 덮쳐버렸기 때문이다. 향내로 가득한 나무가 냄새난 풍기는 나를 덮쳤다는 것은 살아오면

서 가득 쌓이기만 한 나의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대신 향취로 충만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일어난다. 샤워를 할 때 등이 따끔거리 거울에 비춰보니 어깨로부터 아래까지 벌건 상처기가 나 있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식의 흔적을 통해 향취를 표출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싶다.

그리스도의 향취로 충만한 노년이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일일까 싶다. 비록 등에 할 낚 생채기가 있고 그곳에 연고를 발라야 한다 해도....

어제 이태리 코로나 현황-감염 552명, 사망 3명.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김종국 목사
(뉴저지 새언약교회)



Covid-19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전에도 힘들었지만 요즘은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남들처럼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으려만 남들처럼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약점 투성이인 나를 바라볼 때에 참 답답하고 속상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약점, 부족함을 감추고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한 방어적이고, 숨기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시려는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허물과 약점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종하게 쓰임 받은 일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미리 보는 환상, 또 엄청난 계시들을 받았습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고 함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의 몸에 '가시'라는 약점을 주셨습니다. 가시는 죄악도 아닙니다. 또 성격적인 결함도 아닙니다. 약점은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

은 재물이 있고, 탁월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꿈, 나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보잘 것 없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통해서 약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가시에 대한

고후12: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

고백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가시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절로 생각합니다. 간절은 갑자기 발작을 하는 병입니다. 저도 간질 환자를 보았는데요. 갑자기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초점을 잃고, 손과 발이 사시나무 떨 듯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전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을 주셨을까요?

1. 자고/교만하지 않게 하려고(7절)

람이 비록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알고 있었습니.

약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무엇을 얻은 다음에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자고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고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에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잠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2.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고(8절)

고후12: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게 해 달라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세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심이나 노력으로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나 가시를 만나면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기면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인생의 모든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 은혜가 온전하게 하려고(9절)

고후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났고 또 약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후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비록 바울을 괴롭히는 몸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세 번만 기도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큰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지만 때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Covid-19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전과 같이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kimjongkug@hotmail.com

약할 때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10절

팬데믹 이미 ...

(3면에서 계속)

"거리두기의 종말"이라는 가설은 이미 이전에 틀렸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뉴욕주들이 코네티컷 교외로 물러든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터가 분산되는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사상 처음으로 수십만 명의 직원들에게 1년 혹은 그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고 원격으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침이 향후 5년 이내에 업무수행 방식과 일터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3. 대도시로부터 이주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치지형이 재편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분포를 보인다. 2016년 대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10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표 차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연이은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심 지역의 큰 표 차이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패배했다.

민주당원들이 진보적인 지역을 벗어나 공화당이 우세인 레드 아메리카(Red America)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의 3대 대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의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 도심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수천 명의 새로운 밀레니얼 이주민들이 선벨트와 북서쪽을 가로지르는 많은 지역으로 진출했다.

팬데믹은 이러한 흐름을 촉진했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집값이 비싼 도시를 벗어나 더 넓고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재편된다. 집값이 가장 비싼 15개 도시 지역은 모두 기존의 민주당 우세지역, 즉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에 포함된다. 반대로, 2018년 인구 증가율 상위 10개 카운티 중 7개 카운티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피

닉스, 휴스턴, 델러스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 지역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으로 유입된 청장년 대졸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미국 정치를 재편할 수 있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유입된 선벨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러스트벨트의 보수적인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보수적인 지역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당내 온건파의 힘이 세지고, 공화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적인 전략을 수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 백인이 2021년 초에 보급되면 우리는 빠르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슈퍼시티로

부터의 인구 유출이 과대평가된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직장으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의 큰 집을 찾는다면, 장거리 이주보다는 도심 인근의 교외 지역으로 옮길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진보적인 대도시에서의 인구 감소와 공화당이 우세한 레드 스테이트(red state)로의 인구 유입이 2019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새로운 변화는 반발을 불러온다. 원격근무가 도심의 상점, 식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동시에, 다운타운의 임대료가 떨어진다면 새로운 식당들이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재택근무가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기업이 직원들이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사무실로 통근하는 시스템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노동력, 경제,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원격 근무자들은 집에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쓸 것이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장 근처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산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기업가 정신, 그리고 레드 스테이트로의 이주는 모두 전염병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다. 팬데믹은 이미 우리가 나아가고 있던 미래로 이끌어가는 타임머신이다.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울이다. 영화나 드라마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집요하게 온갖 상황연기를 잘 소화한다. 딸의 사랑하는 사위를 죽여야 하는 비련의 역할부터, 영적으로 업엔다운을 거듭하는 신령스런 연기까지 해야 한다. 아마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시상을 한다면 최고의 배우상을 받을 만한 다양한 역할극의 주인공이 사울이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허구가 아닌 실존인물의 기록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는 원래 주인공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지나가는 인생을 악역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의롭고 훌륭한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무고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한결같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본다. 원래 성령을 알았던 사람이었으니, 한결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반대로 한결같이 악을 행하며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다.

관점 (View Point)

존재와 인식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해석하는 마르크스 철학은 인간의 본질이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 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스적 명제가 이 관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의식의 원천이고 기초이며,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며 산물이라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회적 인간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내 생각을 좌우한다는 마르크스 철학의 기초적인 명제인 셈이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명제이다. 그런데 이 심오한 철학도 때로는 사람이 가지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한다. 지식층에서 교묘히 이용하는 한 방법이다. 최근 한국의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강남좌파의 강남성(강남성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한 적이 있다. 본인의 가족들이 속이고 거짓으로 행한 부정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고려대 강수들 교수가 지은 책 '경쟁공화국'에 언급되는 대

성경의 관점

조국 씨의 굉장한 설득력 있는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한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으로 가져와서 생각해서 과연 합당한 말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상황과 조건으로 규정되는 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적변화를 통해 오히려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수준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변화

거룩과 회복, 의지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과 회복을 지향하게 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삶(New Life)을 향해 새 출발하게 되는 환희를 경험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러려니, 어쩔 수 없구나'에 머물지 않는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은혜의 관점으로 거룩과 회복을 바라보며 변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틀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받게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되거나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 어두운 촛불 아래 보던 것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밝은 조망 아래 자신을 바라본다. 예전의 죄악과 허물진 것, 남을 탓하며 세상을 핑계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간절해진다.

돼지우리 같은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과 환경을 견뎌하지 못한다. 비단 눈에 보이는 환경만이 아니다, 자신의 모난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다니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정육 문제로 고민하다 용기 내어 질문합니다. 저는 외로울 때 가끔 밤중에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색욕에 빠져 자위행위를 하며 범죄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선 안 되지 하며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하다 회개하지만 얼마 못가 또 다시 동일한 범죄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풀러톤에서 LeeJ

A: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정육이 불붙는 남자들이 많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먼저 다음의 예를 소개합니다. 어느 시골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소와 말들도 그곳에 와서 갈한 물을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못의 언덕에 독초들이 돋아나기 시작하였는데 뿌리에서 나오는 독성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소와 말도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던 동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이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어보고 제의 하였습니다. 독초를 아무리 뽑아도 땅 밑에서 뻗어 나가는 뿌리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못 주위에 빙 둘러서 버드나무를 촘촘히 심었습니다. 그 후에 버드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연못깊이 뻗어 들어가 주변의 좋지 못한 독초의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버드나무가 양분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초들이 맥을 못 추고 서서히 없어지면서 물고기들도 이전 평화를 되찾았고 소와 말들도 다시 안심하고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읽기와 성령충만으로 정육 물리쳐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연못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영혼 빼앗기 싸움입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점령하는가?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무엇을 보고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내 영혼은 그 영향력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눈으로 보는 동영상들은 무서운 힘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점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음란과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독소와 쓴 뿌리들을 심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생각과 영향력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위의 예화처럼 버드나무를 심듯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촘촘히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충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기도함으로써 성령충만의 힘을 얻어 영혼의 독초들을 맥을 못 추게 날려 버리십시오. 내 영혼의 연못과 정원에 말씀의 생명나무를 매일 심으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영혼 빼앗기 싸움에서 독초를 제압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시편 119편 9,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연약하여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진실히 회개하시면 됩니다. 특히 색욕의 죄는 강하고 끈질겨서 연약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쉬우나 죄를 피하십시오, 혹 범죄하였다 해도 다시 회개하십시오.

둘째, 탁한 공기가 가득 찬 유리병의 탁한 공기를 해결하는 법은 공기 흡착기로 뽑아내는 것보다 주전자의 물로 유리병에 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청년의 정육을 이기기 위해 성령님의 기쁨부음(성령충만)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안경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편적 인생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일반은총의 상식과 건전한 관점을 주었던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것 같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사울같이 하나님을 왕관을 씌워준 목적에 어긋나게 행한 것처럼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사울이나 그와 같은 부류 중에 한명은 아닐는지, 말과 설교는 목사처럼 하

는데 삶의 실천과 순종은 괴리된 채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

두 번째 이유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의 간절함이 기도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깨닫게 되는 경우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나타나는 결과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바라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더욱 기도드린다.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자가진단이 꼭 필요한 삶

- 관점, 은혜, 상식

사울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안경을 잘못 썼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안경을 잘못 쓴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안경이 무엇인가? 비유컨대 View Point,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를 처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왕으로서의 삶도 변함이 없고, 아들과 딸도 멀쩡한데, 사울 그 자신만 색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파랗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갱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진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울도 항변할만하다. 백성들이 저렇게 비교급으로 신하보다 못하게 왕인 나를 바다에 내던질 수 있는가?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다윗은 역적이 되고도 남지 않은가? 게다가 순해 빠진 요나단에 의해서는 도저히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없으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도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 데 문제될 것이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에도, 현실의 그가 하나님을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인 이상은 그를 막을 도리는 없는 것이다.

한민국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관행으로 하던 일들의 패턴을 자신도 모르게 따랐다는 것이다. 자신은 권력구조개편과 학문연구라는 고급진 일에 전념하다보니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관왕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데, 경쟁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적 존재라는 한계가 이렇게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전이(轉移) 혹은 투사(投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급스런 남탕 보이지 않는 핑계에 가름하는 것이다.

그때 그가 사용한 말이 '강남성'이라는 말이다. 통칭하여 강남좌파라는 이름도 연결된다. 생각은 좌파의 꽤 진보적인 신념을 가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 삶은 강남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의식이나 생각은 관왕계 하는데, 몸이 강남에 있다 보니 강남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경쟁공화국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한마디로 내 탓이 아니다. 사회나 국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강남이 아닌 태평양 작은 섬에서 나고 자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사람이 그의 경험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자신의 방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것을 왜 신앙생활을 하나고 묻는다. 예수 잘 믿는 당신 삶에도 이렇게 고통이 많다면 내가 신앙이 좋아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항변한다. 아직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동일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삶 속에서 해석된 관점을 가진 자들은 여유롭다. 이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고통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날마다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감사할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 말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했더니 더 많은 감사의 내용을 허락해 주신다. 기도할 조건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고 해서 어려움 중에도 기도했더니 염려가 사라지고 찬양이 흘러나온다. 기뻐할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안경을 바꾸어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더니 행복한 마음에 즐거움이 배가 되어진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도와야지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認識)하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속사람의 생각이 변하면 그 열매는 자연히 용서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이 되는 것이다.

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결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사치하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고 밝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본다.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항변한다. 아직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동일한 고통과 고난이지만 삶 속에서 해석된 관점을 가진 자들은 여유롭다. 이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고통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날마다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 일반은총과 상식

사울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 조국스런 존재들이 참 많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이들이 많다. 해외동포인 우리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백선엽 장군 같은 이에게 살아야 할 힘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야당 및 이들과 함께 정치적 유익을 누리고 사는 이들은 당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불로소득 집값에만 흥분할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들의 희생의 기초 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이 보수 우파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듯이, 자신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의 눈치만 보기에 앞서 좌우 진영의 모든 국민들의 지도자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살라르(SALAR)

대부분의 살라르족은 중국의 중앙에 위치한 칭하이(청해-Qinghai)성 동쪽에 거주하고 있으며 '살라르'(Salar)라고 하는 그들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다.



스탄의 전 수도였던 사마르칸트(Samarkand) 근처에서 발원한 투르크 종족의 자손들로 보여진다. 살라르의 조상들은 몽골 왕조(1279-1368) 때에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한 것 같다. 과거에 형편없이 낮았던 살라르족의 문명물은 오늘날 상당히 높아졌지만 자신들의 언어인 살라르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에 한해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만 3천여 명의 살라르족 무슬림들이 중국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며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살라르족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즈베키

삶의 모습

촌락은 살라르족 사회의 가장 큰 조직단위로 각 촌락마다 이슬람교 사원과 묘지가 있고 대부분 대가족을 이뤄 시멘트 벽돌로 된 2층짜리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 이들의 주택은 복잡하게 새겨진 기둥과 문틀, 처마가 특징이고, 집들 주변에는 벽돌로 둘러진 앞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과일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이런 생활모습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반적인 것인데 이를 통해 살라르족이 사마르칸트의 자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살라르족의 주된 경제원은 농사로 농부들은 밀, 고지대에 생선되는 보리, 메밀, 호두, 감자 및 다른 채소를 생산하며, 과일류로는 메론, 사과, 포도, 살구를 재배한다. 농사 외에 털

을 이용하거나 고기를 얻기 위해 양을 기르고 산림 벌목업을 하기도 한다. 살라르족의 주식은 전병, 국수, 채소국이다. 살라르족은 남성을 통해 집안의 대를 잇는 남성중심의 강한 부계사회다. 주로 대가족 형태를 이루며, 또한 살라르족에게 결혼은 사랑으로 이뤄지기도 하는 두 가문간의 연합에 더 중점을 두고 결정하는 듯 보인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조건이나 상대의 가문에 대해 중매인과의 논의를 통해 자녀들의 결혼상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보통 말 1-4마리 정도와 옷, 실탕 등이 신부쪽 부모에게 결혼의 대가로 지불됐다. 결혼식은 주로 신부 집 밖에서 치러지는데 이때 신부가 집안에 있더라도 예식이 진행되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신앙

살라르족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에 개종한 이래로 하파니(Hafanite)파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사실 그들은 그 이후 몇 번의 이슬람 반란에 동참했다. 1958년 중국 정부가 이슬람의 관료적인 무라(Mullah)들을 없애버렸지만 1980년부터는 오히려 이전에 금지됐던 종교활동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무슬림 공동체는 이슬람 전통에 기초한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갖춘 지도계급을 가지며, 이 종교적 위계질서가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관습을 통제한다. 이슬람 사원은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슬람 지도자를 이맘(imam)이라고 부른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실상 살라르족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무슬림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이슬람을 대체할만한 사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알려진 기독교라는 것은 무슬림 지도자들인 이맘(imam)들이 주입시킨 왜곡되어 꾸며진 것들뿐이다. 살라르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고, 기독교 라디오나 TV 방송도 없고, 또한 현재 이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도 없다. 대부분의 살라르족은 이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로나 이겨냈지만...상처 못 벗어나는 뉴욕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뉴욕이 전염병이 남긴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뉴욕이지만 전염병이 남긴 사회적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3일 미 CNBC방송, 인터넷매체 약시오스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빈 아파트는 1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다. 시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조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레스토랑은 1200곳 이상 문을 닫았고, 뉴욕·코네티컷 등을 아우르는 대도시교통청(MTA)은 이윤적 급감으로 1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뉴욕을 강타한 지난 3, 4월 수십만명이 도시를 떠난 결과다.

약시오스는 "뉴욕시는 코로나19를 격퇴하는데 성공했지만, 부유층과 월가의 거물들은 뉴욕을 등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팬데믹 초기에는 단순히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 뉴욕을 떠났지만 최근에는 더 다양한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선 재택근무 요건이 개선돼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뉴욕만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다. 학부모들은 봄에는 도심이 아닌 도시 외곽의 안전한 학교에서 자녀들이 대면수업을 받길 원한다. 만연한 총기 사고, 약탈 등에 대한 두려움도 뉴욕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다.

비판론자들은 "뉴욕은 영원히 죽었다"라고 주장한다.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작가인 제임스 알투치는 "기업들은 외진 곳으로 멀어지고 그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죽음의 소용돌이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이 더 오래 비어있을수록 공실로 남게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유명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마이클 와인스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뉴욕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플로리다에서는 비용을 훨씬 적게 들이고도 뉴욕과 같은 규모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反) 트럼프' 만 있고...

미국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반(反) 트럼프'만 있고, 새로운 미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내놓을 청사진에 이번 전당대회의 성패가 달렸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전반부가 막을 내렸다. 17-18일 행사는 진행했고, 19-20일 일정이 남았다.

WP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당대회 전반전에 대해 혹평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등이 인상 깊은 연설을 했으나 노동·교육·보건 등 중요한 이슈들은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에 사는 은퇴한 범죄학자 크리스틴 존스는 이를 동안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잡지에 나오는 인물 스토리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일은 쉽다"면서 "그러나 노동계층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존스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투표했다"면서 "올해 대선 날에는 아마도 집에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진(眞) 기업 민주당 후보(바이든)를 위해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진영이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 이슈에 대한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영업자이면서 평생 민주당 활동가였던 제시카 웨인가르텐은 민주당 지도부를 '특권을 가진 좌파 진보 세력'에 비유했다. 웨인가르텐은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집을 잃어 차에서 사는 사람들과 학교, 보건 문제에 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데이비드 시나이코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연설한 것은 실망스러웠다"면서 "과도한 불평등을 야기했던 클린턴 부부의 경제정책은 젊은 층이 기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진영이 의지하는 '반(反) 트럼프 전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리건주에 사는 안드리야 핵은 "반(反) 트럼프 메시지는 중도 우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그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략 부재를 꼬집은 것이다.

WP는 민주당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쳐야 한다는 대의에는 단결된 상태지만 대선 전략과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분열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권 교체에 위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지지층도 많다. 그러나 바이든이 개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를 고민하는 지지층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당의 고인이다.

WP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 전반부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는 데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미국방부 "北 핵폭탄 최대 60개 보유"

북한이 핵폭탄을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다는 미군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작성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을 20-60개로 추산했다. 북한이 매년 6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췄으며, 2020년 내 북한이 100개의 핵폭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 목적 때문이다.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03년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축출된 사례를 경계하며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신경가스 등 20여종의 치명적 화학무기를 2500-5000t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1kg의 탄저균만 써도 서울시민 5만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커가 6000여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인 121국 소속 인원으로 주로 벨라루스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 조직 중 가장 잘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은 적국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파고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양면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담겼다. 휴전선을 넘어 군사기지, 항만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1차 전면전에 이어 2차로 북한 특수부대를 한국의 후방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은 육·해·공군에 걸쳐 18만-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전파 데이터 얻으려고...

코로나19가 앞으로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생활을 즐겨야 할까.



미국 CNN방송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실제 팝 콘서트 실험을 실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수준을 확인해 앞으로의 실제 문화생활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실험의 취지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할레 대학 연구진은 최근 18-50세의 건강한 자원봉사자 1500명을 모집했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팀 벤츠코의 콘서트를 각각 다른 조건에서 세 차례 진행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은 상황, 두 번째는 팬데믹 이후 위생 수준을 높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하지 않은 상황, 세 번째는 입장객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5m 이상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상황으로 설정했다.

콘서트 참가자들은 모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다. 또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장치가 제공됐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추적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손에는 형광소독제를 사용했다.

팀 벤츠코는 "수개월 만에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정말 콘서트를 연 것 같은 기분이었다"면서 "머지 않아 대규모 공연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지만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험에 참가한 시민 엘리 블레츠(20)는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고, 우리는 음악을 즐겼다"면서 "6개월만에 공연장에서 실제로 음악을 들으니 좋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규모의 실험이 유럽에서 시도되는 건 처음이며, 행사의 종류나 관객들의 행동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CNN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시 봉쇄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생활을 지속해나가는 데 위험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위험을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작센안할트주와 작센주는 이 실험을 위해 99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 연구의 초기 결과는 가을에 나올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다. 독일에서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2034명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1071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봉쇄 조치를 해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플파티도 모자라 '술파티' 연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로 의심받은 중국 우한(武漢)에서 연이어 개최된 대규모 축제가 논란이다. 최근 비난 여론을 낳았던 '플파티'에 이어 이번에는 '술파티'가 열렸는데, 세계 각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재확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1일 중국 우한에서 열린 맥주 축제 현장을 전하며 "사람들로 꽂찬 워터파크 풀파티가 논란된 지 며칠 만에 또 이런 큰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참가자 수천명이 북적였고 마스크 안 쓴 방문객도 많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4일간 계속된 맥주 축제 상황은 외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됐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일부러 벗기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이에 여전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일부 국가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우한은 지난 15일 마야해변 워터파크에서 진행한 풀파티에 비판을 받았다. 당시 몰려든 대규모 인원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따르면 파티 참가자들은 수영복 차림을 한 채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고 그 상태로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겼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를 조롱하는 것이냐" "한발 늦은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사실을 잊었냐" "우한은 바이러스가 시작된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등의 글과 함께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중국 일부 언론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우한이 회복했으며 관광객 유입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 파티"라며 "이번 풀파티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라들에 '엄격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열린 맥주 축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이 행사는 우한의 야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한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시선에는 "한 달 넘게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주최 측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4. 이화목(1898-1997)

이화목은 1898년에 평양의 김시장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평양 숭의여학교를 나와 여자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김익두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겼다. 그녀는 1916년에 이선두와 평양에서 결혼했고, 1922년에 남편 이선두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한국에 머물렀다.

이화목은 일찍이 조선여자외국전도회 회장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했다. 세 딸을 두었는데 두 딸은 일찍 세상을 이별했으므로 그녀는 딸 일경(케이)을 데리고 41세가 되던 1939년 7월 5일에 친간한 선편으로 미국 나성 남쪽 산페드로 항구로 도미했다.

이화목은 미국에 와서 남편 성을 받아 만든 두 번째 이름이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김화목이었다. 그녀가 도미한 지 나흘이 되던 1939년 7월 9일에 이화목을 위한 환영회가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있었고, "자미로운 순서를 거행하였다." 당시 본 교회 담임목사는 1937년 2월 16일에 한국에서 나성한인장로교회로 부임한 김성락이었다.

이화목은 도미한 그달 23일 아침 11시 예배에서 설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다수 동포가 와서 이치 있는 강설과 고향 소식을 듣기를 바란다"고 신한민보에 광고했다. 그녀가 도미한 이듬해인 1940년의 3월 5일에 당회장 김성락 목사의 제안으로 당회는 본 교회 안에 부인전도회를 설립하기로 가결하였고, 기아나 선교사와 이화목에게 본 교회 부인 집사들과 협동하여 부인전도회를 조직하도록 맡겼다. 그 해 5월 29일 오후 8시 30분에 본 교회 주일학교 교실에서 '장로교부인전도회'를 결성하고 임원을 선정할 때 이화목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 임원으로는 서기에 김종옥, 회계에 박화순, 고문에 기아나였다. 이날 회비는 매월 25센트로 하고, 입회금은 50센트로 하고, 통상회 기일을 매월 3차 주일로 했다. 본 전도회는 "누부신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예수님 당시의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그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서로 의논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

였다. 위에 언급한 기아나(奇亞那)는 아내 M. 맥키(Anna M. McKee) 선교사로 1909년에 미국 북장로교 독신 여자선교사로 내한하여 재령과 평양에서 여성사역을 감당하다가 1933년에 은퇴한 후 도미하였고,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이화목 (1967년)

1940년 9월 1일 주일 하오 8시에 국민총회관 대례당에서 나성지방회 국어학교 하령회 방학식이 있었다. 이날 지방회 교육위원 임치호의 사회로 개회하여 일동이 애국가를 합창한 후 사회자의 취지 진술이 있는 다음에 이화목이 간곡하게 기도하였다. 이후 일반 생도들의 '산토끼' 합창, 김랄프의 연설, 조하빛의 독창, 3반 학생의 '밤 한톨' 시 읽기, 오일순과 박신영의 피아노 병주, 1반 학생의 속담과 합창에 이어 광고순서가 있었다. 2부에서 임해실의 피아노 독주, 2반 학생의 '눈꽃 세' 합창, 3반 학생의 '여호와 나의 목자' 시 읽기, 박동원의 독창, 3반 학생의 '고추 먹고 맴뎌' 합창 그리고 일동이 교가를 불렀다.

그해 9월 15일 하오 8시 15분 목사실에서 김성락 목사의 사회로 이영기, 전호택, 손승조, 윤병희 등 4인이 출석한 당회에서 이화목을 부인 전도사로 채용하기를 이영기의 동의와 손승조의 재청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이화목은 부인 전도사에 장로교부인전도회 회장으로 여성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41년 4월에 이화목이 회장인 장로교 부인전도회는 남가주 지역 부인전도회에 가입하고 전국 사업을 협력할 수 있었다. 백인 남가주 부인전도

회 총회가 열릴 때 '꿈기가 꽃 같은 유년 주일 학생들과 본 부인전도회 회장 이화목은 한국 전통 옷을 입고 등단하여 한국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문화를 자랑하였고, 조종익의 부인 조세핀은 청아한 노래를 독창하여 천여 명의 대표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1944년 1월, 이화목은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로 선출됨으로 교회 전반에 그의 손길이 뻗었다. 또한, 그해 이화목은 여자봉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해 3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본 여자봉사회 주최로 특별 음악 순서를 결정한 특별예배였다. 그녀는 세계 제2차 대전일 발발한 전시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광고를 신한민보에 냈다.

그해 5월,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교 부인전도회 회장 이화목이 경북 대구에서 다년 선교하신 안두화(Edward A. Adams) 선교사가 나성을 방문하는 기회에 그를 강사로 초빙하여 본 전도회 주최로 그달 28일 오후 8시에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특별예배를 모인다는 광고를 신한민보에 내고 다수 동포가 참석하기 위하여 저녁에 모이기로 했고 설명하면서 많은 참석을 권고했다.

그해 9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에 나성한인장로교회에서 김중수 목사 교역 25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있었다. 찬송에 이어 마영준 장로가 기도하고, 성경교육 후 찬송을 불렀고, 현금한

회 사교실에서 한국으로 다시 부임하는 옥호열(Horace Volkiel) 선교사 부부의 전별회를 개최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수고로 감사를 드릴 때 이화목이 중심이 되어 장로교 부인전도회가 전별회를 준비했으며, 이듬해 1월 12일에 시내 마얀 호텔에서 메리 스투잇(Mary Stewart) 부인의 75회 생신잔치를 교회적으로 거행하고, 스투잇 부인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여준 희생적 사랑에 보답하는 뜻을 표시할 때 이화목이 중심이 된 전도회가 수고하였다.

장로교 부인전도회는 1948년 2월 7일 월례회에서 중국에 잔류하여 해방이 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한인교포와 한인교인들을 돌보고 있던 방지일 선교사에게 위로금으로 100달러를 보내기로 했고, 그해 5월 22일에 가결한 대로 서울 영락교회에서 주관하는 고아원인 보린원의 건축기금으로 1,000달러를 보냈고, 625동란 이후 전쟁미담인을 위한 서울 다비다 모자원에 120달러 상당의 재물을 한 대를 기증했다.

1949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김성락 목사의 부친 고 김선두 목사 추모 예배를 드려 김 목사와 그 가족을 위로하였다. 장로교 부인전도회가 식사 등을 후원했을 것이고, 이화목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안다.

1953년 10월 11일에 모인 장로교 부인전도회 월례회는 경북 대구 근방의 노곡동 교회에 임중숙 전도사를 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본 위원회의 전거로 하와이의 와이아와 한인교회에서 6년간 묵묵히던 권희상 목사가 1959년 7월 1일에 본 교회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권 목사는 1944년 연희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남가주대학과 상한신학교를 1948년과 1951년에 각각 졸업한 후 1953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화목은 1960년까지 17년간 장로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한 해 쉬었고, 1962년에 다시 장로로 취임했다.

권희상 목사의 사임 후 1968년 1월 28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7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했을 때 이화목은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김형일 목사가 임시목사로 부임하였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초기의 전도자 김영옥 목사의 둘째 손자이며 김은석 목사의 차남으로 샌프란시스코 장로교신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롱비치 주립대학에서 철학박사 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968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이화목은 성바울한인교회 김요한 목사의 메시지를 보고하면서 성 바울한인교회의 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와의 합동 제안을 거론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합동을 가결하였고, 그해 3월 10일 주일에 첫 합동예배를 드렸다. 이후 두 교회 연석회회는 교회 입적 절차에 따라 '장로교 헌장에 따라 4월 21일부터 4주 동안 주일아침 10시부터 11시 까지 주일학교를 통해 교인자격을 재교육한 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식으로 교인이 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립 신앙고백으로 본 교회에 입적하도록 했다. 이로써 약 30명의 교인이 출석하여 눈에 띄게 교세가 증가했다. 성바울한인교회의 김요한 목사는 교회문체협약의 심방 등을 하기로 하고 월 사례비로 100달러를 드리기로 가결했다. 그런데 16주가 지난 후 성바울교회는 분열되고 말았다.

1969년 11월 당회는 장로 수를 지금까지의 정원수의 거의 배가 되는 12명으로 가결하였고, 이듬해 12인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때 이화목은 당회원으로 시무했다.

1972년 6월 18일에 배리언 목사가 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해 7월 16일 모인 공동의회에서 이화목은 구두로 장로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이화목의 장로직은 총 26년간이다. 그해 9월 19일에 우상범이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임시목사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1월에 결성한 7인 장로추천위원회에 이화목이 피선되어 그해 2월의 공동의회는 김치은, 문영조, 안정옥, 이대수, 조규환, 차경수 등 6인을 장로로 선임했다. 노회는 이어서 당회장으로 내한선교사 배위량의 손자인 존 S. 베어드 목사를 임명하였다. 이화목은 1997년 향년 9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1939년 딸과 함께 도미,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로 26년 재직 부인전도회 회장으로 해방된 한국 복음사업과 선교경비 모금

후 광고가 있었으며, 이헬렌의 피아노 독주 후 윤병구 목사의 설교, 이마리아의 독창, 이병역 장로의 김중수 박사의 약사, 전유선의 기념품 증정 후 이화목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김중수 박사의 답사, 찬송, 축도로 이어졌다.

1945년 9월, 국내 복음 사업 부흥 운동을 위하여 나성한인장로교회 부인전도회는 한국 해방 시기에 있어서 국내 복음사업 부흥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했다. 본 전도회 회장 이화목과 서기 김중옥이 이성례와 함께 그달 2일에 달라노를 방문하였고, 그달 9일에는 중가주 각지 재류 동포를 방문하여 총액 500여 달러의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그달에 나성한인장로교회 당회는 김성락 목사의 노고를 감사하여 본국에서 6개월간 체류하도록 허락하고 임시 당회장으로 나성노회의 뉘을 목사를 가결하고, 강단은 당회원이 맡기로 하였다. 1946년 2월 당회는 3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에 이화목 장로가 설교하기로 하였고, 3월 10일 주일오후 8시에 모이는 특별저녁기도회를 이화목 장로가 인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해 3월 당회는 4월 21일 주일아침 예배에서 이화목 장로가 설교하기로 했다.

1946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교

송하여 1년 동안 300불을 후원하였고, 본 교회가 자립하던 1959년까지 전도비를 후원하였다. 1960년에 강경구 여전도사를 영등포 지구 공장에 파송하여 연 500달러를 후원하여 공장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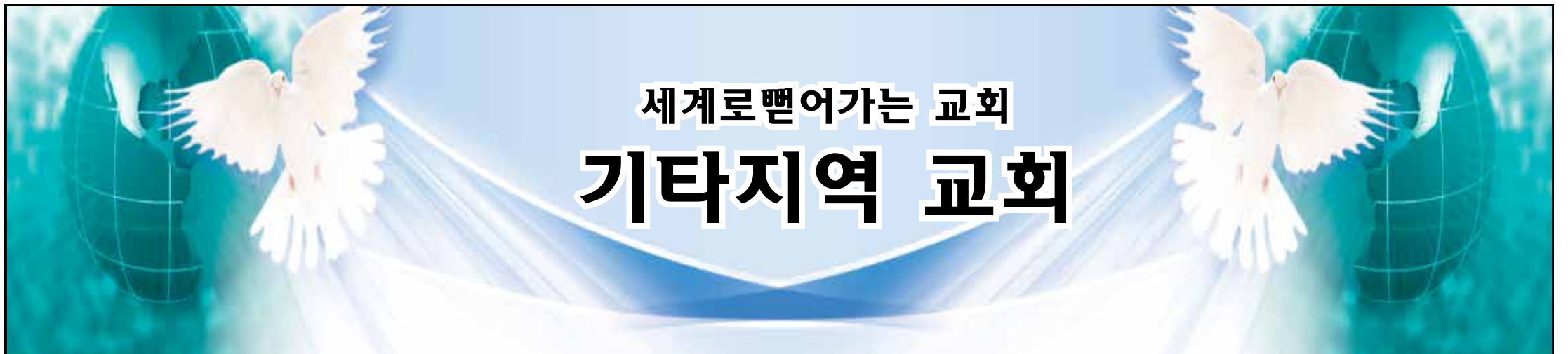


나성한인장로교회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강 전도사는 동아연직, 대한모직, 대동모방 등을 순회하며 이곳에서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전도했다.

1958년 2월 1일로 김성락 목사는 사면했다. 그해 30대의 청년 목사로 부임하여 50대의 초모기에 서울 숭실대학 학장으로 가게 되었다. 야마 이화목의 전도사직은 이해로 마쳤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19년간이 되겠다.

그해 6월 1일 임시 당회장 뉘슨 목사의 사회로 차기 '목사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화목은 7인 목사청빙



| | | | | | |
|--|--|--|--|---|--|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워, 워, 워: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령찬양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아, 워, 워, 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e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Seattle, WA 98125 |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목사의 소명” (1)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8)

11장 공적 기도(설교자의 공 기도)
 마지막으로 퍼킨스는 대언의 두 번째 측면으로서 공적 기도에 대해 다룬다. 그는 공적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해 준다:

- 1)사람들의 죄와 부족함을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다. 주님의 기도는 여섯 가지 중요 주제로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순종, 생명의 보존, 죄의 용서, 영력의 강화).
- 2)목사가 기도하고 회중이 아멘 한다. 기도와 감사로 마칠 때 회중은 아멘이라고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다(느8:6 고전14:26).
- 3)목사의 기도내용이 회중에

삶과 실천에 맞게 적용할 것.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윌리엄 퍼킨스의 “목사의 소명” (1)

서론

윌리엄 퍼킨스는 욥기 32장과 33장을 서문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아 보냄 받고, 이 큰 임무를 위해 교회가 임명한 자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는 참된 목사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목사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목사의 칭호는 전달자와 해석이며 둘째, 목사의 희소성은 ‘일천 중의 한 사람’인데 있으며

님에 대한 사람의 해석자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임이며, 사람의 입인 이중적 해석자라고 기술한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학자의 허를 가져야 한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책을 받아먹는다는 것도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인간을 참된 해석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연구를 한 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2장 참된 목사의 희소성

참된 목사가 적은 이유는 목사의 소명이 경시되고 있기 때

연하는 방법은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 한다. 무엇보다 목사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를 잘 인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를 선포하는 직무를 가진 목사들을 존중해야 한다. 특별한 것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목회 소명에 헌신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을 추천한다.

4장 참된 목사의 사역에 주어지는 복

목사는 의를 설명하고 하나님은 의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목사들이 지상에서 묶고 푸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통치자들과 목사들은 교회에서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 통치자들도 개인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목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의를 선포하는 것은 목사의 임직이며,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도들이 직무를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예외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5장 참된 목사의 위임과 권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사역자 하나님께 부름 받아 보냄 받고 임무위해 교회가 임명한 자

게 이해되어야 한다(고전14:15. 길게 늘어져서는 안된다(마6:7).

4)목사의 공적 기도는 회중에 대한 화해적 기능을 한다. 화해적 기능이란, 기도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적절한 순서로 주제를 설정하고, 기도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회중들 가운데 생기는 교제라 할 수 있다.

퍼킨스는 다음과 같은 요약의 글로 분석을 마친다. 설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가)성경 본문을 분명하게 봉독함. 나)본문 봉독 후 문맥에 비추어 성경본문의 의미를 설명함. 다)본문의 자연스런 의미에서 도출된 교리의 몇 가지 유익한 요점을 모을 것. 라)설교자가 적합하게 은사를 받았다면 교리를 분명하고 쉬운 언어로 회중의

셋째, 목사의 직무는 의를 선포함에 있으며 넷째, 목사가 받을 상급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며 다섯째, 목사의 위임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리지 않게 하라! 내가 다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1장 목사의 칭호

먼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령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또한 청중은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목사는 참된 해석자로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해석자이며, 하나

문이다. 또한 목사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요 목사의 사회적 신분이 낮고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목사가 적다는 사실에 대해 퍼킨스는 교도회의 입장에서 통치자와 군주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목사와 젊은 학생들과 성도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3장 참된 목사의 직무

목사는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또한 의를 얻는 방법도 말해주어야 한다. 목사는 의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로마가톨릭을 공격하며 가톨릭이 자신들의 의를 사람에게 확신시키는 잘못을 지적한다. 목사가 의를 가르치고 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해야 한다. 목사들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아버지들에게도 적용되어 그들은 자식들을 지옥의 정죄에서 구출할 위임이 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목사의 소명에 헌신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의의 열매

간만에 남편과 둘이만 휴가를 다녀왔다. 이 나이에 둘이 가서 뭐 재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행은 낯선 삶 가운데 불편함을 겪으며 그냥 지나쳤던 일상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찾는 것이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다. 그렇다. 딱히 하는 일이 없이도 놀 마음이 분주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삶의 여유와 무료함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보며 남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다. ‘의의 열매’이다. 그레 남은 내 삶은 의의열매를 맺고 사는 거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지식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 애쓰며 일생을 달려온 것 같다. 아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다른 걸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후9:10). 이 말씀이 내 영을 깨운다. 그렇다 아마도 다른 열매들은 내가 애를 쓰고 맺으려고 노력했다면 의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열매이리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일3:2). 그렇다. 하나님은 정말 불쌍하고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나를 재창조하셔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나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 내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잘못 살았던 때에도 나를 변호해주는 분이 계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 없다고 불의하다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토록 오랫동안 배워오는 바람에 거기에 몸과 마음이 세뇌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수확공식처럼 우리 뇌에 박혀있는 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다시 깨닫는 의는 회개하거나 더 많은 주의 일을 해서, 더 많이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본다. 의는 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피눈물에 의해 얻어졌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4:4)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깨닫기 때문이리라.

모든 애벌레는 네비가 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넘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 매일 매일의 영의 성장과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의의 열매를 주령처럼 맺게 되리라.

changsamo1020@gmail.com

| | | | | | | | | |
|---|--|--|--|--|---|--|---|---|
|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 | | | | |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30(토)</p> <p>Tel. (718) 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 |
| <h4>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8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경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 387-9840, 98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 | | | |
|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p> <p>Tel. (201) 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남성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안영모임: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노인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9: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0</p> <p>Tel. (516) 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5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 | | |
|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 | | | | | <h4>뉴욕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후 8:30(토) 금요일기도회: 매일 오전 7:30 금요일특별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
|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원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 <h4>멕시코 현지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신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 | | |



목회서신

살아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 있다는 것이 위대한 축복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살아 있음의 귀중함을 알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는 절박한 심정의 기도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시라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시39:13).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없어지게 될 가능성의 위협을 느끼면서 드린 생명을 건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고침을 받았고 그 당시 그 병은 고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떠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을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연히 가슴 찡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년의 어느 남자는 동료들과 함께 높은 폭포수가 흐르는 높은 절벽 위 바위에서 낙하 점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옷이 벗겨질 때 그분은 가방에 든 비닐주머니에서 흰 가루를 한 움큼씩 집어 허공에 던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슬픈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당

신을 영원히 기억 할게요"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흰 가루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의 유골 재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고 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유골가루를 공중에 뿌리려 장례의식을 점프장에서 행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자라 그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은 저렇게 한층의 가루가 되어 자취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아.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아. 나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사라져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살아 있을 동안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건강과 생명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중년에 데려감을 당하는 위험을 기도로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시 102:24).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선한 즐거움의 분복을 누리야 합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잘 섬겨 오늘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주를 잘 섬겨 미래를 예비하기도 하고 주를 잘 섬기고 충성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입니다. "일의 결구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라"(전12:13). 우리가 아직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우리에

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특권과 삶의 소중한 무기들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무기입니다. 교회도 무기입니다. 가정도 무기입니다. 재능도 무기입니다. 인적 자산도 무기입니다. 붙여주신 사람들도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듯합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에 무능한 이들을 갖고 놀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정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끝나는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도로 난관과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시라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시39:13).



CMF선교원 8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더글라스김 목사(사진왼쪽)와 김철민 장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말씀 선포

CMF선교원 8월 월례예배, 설교 더글라스김 목사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1일 오후 5시 8월 월례예배를 CMF선교원 채플실에서 드렸다. 찬양과 경배 후 더글라스김 목사(HYM 대표)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행 4:28-3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목적

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깨닫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며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욱 담대

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주님의 자녀 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설교 후 이어진 기도에서 김 목사는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어진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성령 부흥을 위해서 등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후 예배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차드에 1차 5만불 지원금 전달

소망소사이어터, 기금모금 캠페인 계속

'차드공화국 돕기 기금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터(이사장 유분자 장로, 이하 소망)가 지난 8월 21일 현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만1천33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해 지난 17일 1차로 차드 정부에 송금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처음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곳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

표역의 몇 %까지 모금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자 1주일 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목표액 5만달러를 초과 달성해 정말 감격스럽다"고 한인사회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 함께 이 캠페인을 이끌었던 황치훈 이사(해의협력부장)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차드

공화국 어린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쌀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모금 캠페인의 참여자들은 쌀 한 포대를 구입할 수 있는 25달러 후원부터 1만 달러를 후원한 기부자까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성금을 보냈다. 1차적으로 차드에 보내진 5만 달러로 8월 3째 주부터 차드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금액과 계속 후원되는 기부금은 앞으로도 계속 차드공화국을 도와주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도움을 주기 원할 경우, 소망으로 연락하거나(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5836 Corporate Ave, Suite 110, Cypress, CA 90630), paypal 계정이 있는 경우는 somang@somangociety.org로 보낼 수 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터>

KAPC 목회와 ...

(1면에서 계속)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왜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 하지만 끝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라며 "육은 죽음을 통해 자녀들에게 갈

수 있지만 이미 생명을 다한 자녀들은 육에게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남겨진 슬픔이며 아버지로써 슬픔 속에서 장차 아들이 늘어놓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담겨져 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

육의 마지막 슬픔 속에 독생자 내놓으신 하나님 마음 감춰있어

서야 했다. 육이서는 고난을 이겨낸 책보다 육의 마지막에 남겨진 슬픔 속에 오실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육의 마음에 역설하고자 감추어 놓으신 것"이라 말했다. 송 목사는 사도행전 11: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

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을 통해 "왜(Why)에서 무엇(What)으로 질문을 바꾸라"며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했다. 송태근 목사는 "팬데믹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를 분석하는 것 좋

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몰두하기보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찾아 그 일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큰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질문을 통해 삼일교회의 '무엇(What)'에 대해 나눴으며 정교분리에 대한 질문에는 "동전의 양면 같다"며 "단선적 접근보다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는 선별적으로 반드시 시대의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services.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머무는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산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교계 게시판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11회 정기총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유병우 목사) 제 11회 정기총회가 9월 1일(화) 오전 11시 수정교회(담임 이준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njkacane@gmail.com

GUM 온라인 선교학교

GUM(Global United Mission, 대표 양춘길 목사, 사무총장 신태훈 선교사)가 9월 1일부터 국내외 선교단체 8명의 지도자들을 강사로 초청 온라인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한다.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동부시간)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등록비는 20달러(교역자 및 대학생 10달러)이며 신청기한은 8월 31일(월)까지. 강사와 강의 주제는 △김병선 선교사(GP 인도네시아) '선교의 성경적 기초' △박신욱 선교사(SEED 대표) '마지막 시대의 선교: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 △이재환 선교사(COMEMission 대표) 'Mission Possible' △조용중 선교사(KWMA 사무총장) '세계 선교 현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망' △호성기 목사(PGM 대표, 필리핀 선교교회) '선교의 제4 물결'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난민선교-우리 곁에 다가온 이웃(데이튼 오하이오 사역)' △전생명 선교사(FMnC 전 대표) '엔택트 시대의 디지털 선교' △양춘길 목사(GUM 대표, PMC 담임) '선교적 교회, 왜 되어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등이다.
▲문의: 신태훈 선교사(201-560-2861, gum@gumnet.org)

KAEA 유스커뮤니케이션즈 교육세미나

한미교육자협회(KEEA, 회장 민디 박)와 유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 유수훈)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가 8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서부시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주제는 '슬기로운 질문법(Questioning Strategies to Enhance Student Thinking Skills)'으로 강사는 미국 교육계에서 40여 년간 활동한 수지 오 교육학 박사. 1시간 강의 후 질의응답(Q&A) 시간도 약30분가량 준비돼 있다.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육관련 질문을 이메일(labook2020@gmail.com)로 접수하면 우선적으로 답변을 들 수 있다. 이번 교육세미나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사고력 향상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라면 초중고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접속번호는 818-940-0208이다.
▲문의: labook2020@gmail.com

IT 강좌 Python Programming for Beginners

네이버플러스재단이 제공하는 IT 강좌 Python Programming for Beginners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영어로). 9월 5일(토) 오전 10시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본 강의기간은 9월 12일-10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동부시간) 등록자에 한해 링크를 보내준다. 접수인원은 20명(선착순), 수강료는 100달러(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수강료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제 14회 성인힐링캠프

에스터하 재단이 주최하는 제 14회 성인힐링캠프가 온라인으로 9월 3일(목)과 4일(금) 이틀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동부시간) 열린다.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30명. 이를 모두 참석자에 한해 신청서와 검사지를 제출하면 된다(이메일 easterhafoundation1@gmail.com이나 ehaha 카톡으로). 힐링캠프 후 신청자에 한해 Follow Up Session이 매주 화요일 있게 된다.
▲문의: (917)993-2377

베델한인교회 제5차 신학강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제5차 신학강좌를 '내주 반석위에 든든히 서리라'라는 주제로 9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서부시간)에 연다. 일정은 2일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상황에서의 대처방안', 9일 함영주 교수(총신대학교)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교육', 16일 박용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동성애 금지에 대한 교회 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 23일 김용석 교수(총신대학교 신대원)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 30일 '질의응답 및 토크쇼'로 진행된다. 등록은 본교회 홈페이지(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APEADutsozG4JE5d5VIH6mmERYjPZu2xipdSAXd2koZbfA/viewform)에서 하면 되며 등록자들은 교재를 교회에서 픽업할 수 있다. 픽업일은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주차장 신학강좌 부스.
▲문의: (949)854-4010

장학생 모집

강드립과운데이션이 후원하며 KYCC와 남가주밀알선교단이 공동 주최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10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자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https://bit.ly/kdf2020에서 다운), 자기소개서(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포함), 최근 1년 성적표(누적학점 4.0 기준 3.0이상), 주처 단체장 추천서이다. 접수마감은 9월 4일이다.
▲문의: KYCC 리사 김(Lkim@kycc.org), 이종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smilal@milalmission.com)

선한청지기교회 삶터세미나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다시 삶터'라는 주제로 삶터세미나를 8월 30일(주일)과 9월 6일(주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서부시간)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강사는 서명구 교수(매릴랜드대학교 경영학과,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공동대표)이며 신청방법은 교회 홈페이지(gsch.org)에 있는 배너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jeremiah21@gmail.com



뉴욕목사회 회칙개정안 확정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임원역할 축소, 회원권한 확대”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앞서 상정안 확정 모임 가져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8월 24일 엘리펀드 파크에서 임원 모임을 갖고 임시총회에 상정할 회칙안(본지 1790호 10면 참조)을 최종 결정했다. 임시총회는 회칙 개정을 안건으로 9월 7일(월) 오전 11시 엘리펀드 파크에서 열리며 팬데믹으로 지친 목회자를 위로하는 모임도 겸한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이번 상정 회칙을 소개하며 임원 및 증경회장들의 권한이 약화됐고, 반면 회원들의 권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임원회의 결의로 목사회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상정안은 임원회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공고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고 개정해 회장과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정안은 그동안 구인난 가운데 임원에 대한 자격이 없었으나, 정회원인 총무·서기·회계는 회원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자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정안은 선거 입후보자 서류에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를 없애 증경회장들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대신 “목사회원 5명 이상 추천서”를 15명 이상 추천서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상정안은 “회원의 자격”에서 “총회 무단불참 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

는 항목에서 교협과 다른 목사회회의 성격에 따라 “무임목회 3년 이상”을 뺐다. “총회 무단불참 3년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개정했으며, “박탈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복되며, 총회 당해 연도 회비만 납부한 자는 다음회기 총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를 신설했다.

상정안은 현재와 같이 3년치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총회 연 5년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함으로 자동으로 제명한다”를 신설했다.

선거에 대한 조항도 개정과 삭제가 있다. 상정안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선관위의 복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후보 자격에서 “담임목사” 조항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삭제했다.

상정안은 회의에서 “실행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년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연 회비를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렸다. 회칙개정은 임시 및 정기 총회에서 하며,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연도록 개정했다.

뉴욕목사회 회칙은 지난 2009년 개정한 이래 11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제3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결석임원 선출, 노회원 5명 가입 등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제3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제3회 정기노회가 8월 18일 오전 11시 주 예수사 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 동사 황용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노회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지난 회기 임원 모두를 유임시키고, 그동안 결석으로 있던 임원들만 새로 선출했다.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황용석 목사(유임) △부노회장 양경욱 목사(유임) △서기 김상용 목사(유임) △부서기 Carrthers 목사(신임) △회록서기 황용석 목사(유임) △부회록서기 방명근 목사(신임) △회계 김환창 장로(유임) △부회계 김병택 장로(유임).

이날 서상원 목사(주 예수 사랑교회), 정일천 목사(가데말라 링콩 주 예수 사랑교회), Rev. Judy Turin (Haiti), Rev. Caruthers (Townley Presbyterian Church), Rev. Saal M. Hali (Teaneck High School) 등 5명의 가입 청원을 받았다. 또 김준현 전도사(주 예수 사랑교회)와 배대진 전도사(뉴저지

지 베델장로교회)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받았다. 김준현 전도사는 뉴저지주총신대학교 신학교대학원에서, 배대진 전도사는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석사(M. Div) 학위를 취득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김상용 목사 인도로 황용석 목사가 기도, 노회장 황용석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담당했다.

황용석 목사는 잠언 28장 9절, 야고보서 4장 2-3절, 요한 계시록 8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찬식은 부노회장 양경욱 목사 집례로 방명근 목사가 기도를, 황용석 목사가 분병을, 김환창 장로가 분찬을 담당했다. 양경욱 목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을 본문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

‘D-30일 남았습니다’

뉴욕교협 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모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는 8월 18일 오전 10시30분 교협 회의실에서 임원회 및 할렐루야 2020 대뉴욕복음화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양민석 목사 사회로 총무 이창종의 회무보고와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의 보고 후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D-30일 남았습니다’(9월 18-20일), 8월 27일 열리는 2차 준비기도회, 조직표, 지원금, 홍보(인터넷, 카톡, flyer, poster, 봉투 넣는 작업), 인원

동원, 특별순서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창종 목사 인도로 정대영 목사의 기도, 권캐더린 목사의 말씀(“할렐루야”, 시150), 합심기도(유승례 목사, 안경순 목사, 김정숙 목사), 광고 문정용 목사, 김희복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한편 8월 20일에도 준비위원회 모임이 열렸으며 줌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뉴욕교협이 지난 18일 교협사무실에서 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모임을 가진 후 기념촬영 했다.



뉴욕센트럴교회가 지난 23일 주일예배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팬데믹 속에도 3만 달러 장학금 전달

뉴욕센트럴교회, 18년째...총23명 한국 미전역 확대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는 8월 23일 주일예배에서 23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2만5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뉴욕센트럴교회는 18년째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해 오고 있다.

김재열 목사는 설교를 통해 “뉴욕센트럴교회가 지난 40년간 ‘널리 선교와 고루 봉사’라는 모토로 달려왔다. 건축을 하는 중에도 선교비는 1불도 안 깎았는데 장학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국 신학교 후원까지 더욱 풍성하게 3만 달러를 전달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뉴욕을 넘어 8개주에서 지원한 것처럼, 앞으로는 코리언의 담을 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타민족까지 하나님의 귀한 인재를 길러내는 기회를 갖자”고 당부했다.

주일예배 중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하며 봉사하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리더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응원”이라는 목표로, 올해는 41명 지원자 중 23명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23명중 9명은 신학대 재학생이며, 14명은 일반대학 재학생이다. 장학생은 필요한 형편, 성실한 믿음, 성숙한 성품, 우수한 성적 등의 기준으로 선출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뉴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등 미국 8개주에서 선발됐다. 장학생을 받은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됐다”라며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주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다”, “졸업 후 도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할 것” 등을 다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11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줌으로

뉴저지 34기 실버미션스쿨 화상으로 개강

뉴저지실버선교회 산하 실버선교사훈련원이 주최하는 34기 실버미션스쿨이 8월 24일 저녁 줌(Zoom) 화상으로 열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봄 학기는 개강하지 못했다.

34기 실버미션스쿨은 11월 9일 수료식까지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3번의 강의를 진행한다.

실버미션스쿨 교육은 △선교는 사명 △선교의 이해 △선교의 현장이라는 3가지 큰 카테고리 갖고 ‘선교는 사명’ 파트는 박동건 목사(CRM 한 국대표)가 미셔날처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인도하며, ‘선교의 이해’ 파트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부분으로 나뉘 김용철 목사(운영이사장)와 김종국 목사(훈련원

장) 등이 강의를 인도한다. ‘선교의 현장’ 파트는 선교사들이 현장 선교사의 사역, 선교지에 대한 갈등과 문제, 중남미 선교 등을 다룬다.

24일 첫날 집회에서 훈련원장 김종국 목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영상훈련에 기대달라, 캔사시티, 뉴욕 롱 아일랜드 등에서 30여명이 등록했다”고 알렸다.

이사장 김용철 목사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 되기를 바란다”며 (13면으로 계속)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6)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4. 청교도들의 다섯 가지 특징 (特徵, Characteristics)

[필자주] 본고는 조엘 비카랜들 페더슨(청교도를 만나다), 이승구(청교도운동 시작과 발전), 오덕교(언덕 위의 도시, 청교도 이야기), 토마스 맨튼(자기부정), Cotton Mather(하나님의 약속), Hindson(청교도신학), 외 다수의 자료를 참조하여 기록했다.

청교도(Puritan)들은 교리적(教理的) 측면에서 강력한 칼빈주의(Calvinism)를 표방했다. 경험적(經驗的) 측면에서는 따뜻하고 커다란 교화력(教化力)과 영향력(影響力)을 지니고 있었다. 복음적(福音的) 측면에서는 힘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고 교회론(教會論) 측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예배를 최 우선시했다. 정치적(政治的)으로는 왕과 의회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聖經的)이고 균형 잡힌 양심에 구속되는 삶의 태도를 표방(標榜)했다.

피터 루이스(Peter Lewis) 목사는 청교도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청교도 신앙의 특징은 '신앙생활'이다. ②청교도 신앙의 특징은 가정 생활에서 찾아지는 신앙교육이다. ③주일 성수개념과 교회관이다. 이처럼 우리가 청교도들을 알게 되면 참된 성도의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알아야 한다.

조셉 파이프(Dr. Joseph A. Pipa)는 청교도들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狀況) 속에 살면서도 효과적(效果的)으로 복음사역(福音使役)을 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은 우리의 신앙고백적(信仰告白的)인 표준서(標準書)들의 발원(發源)자들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청교도들은 성경에 정통(正統, legitimacy)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 Jones)은 “사도시대 이후 교회사(教會史)에서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청교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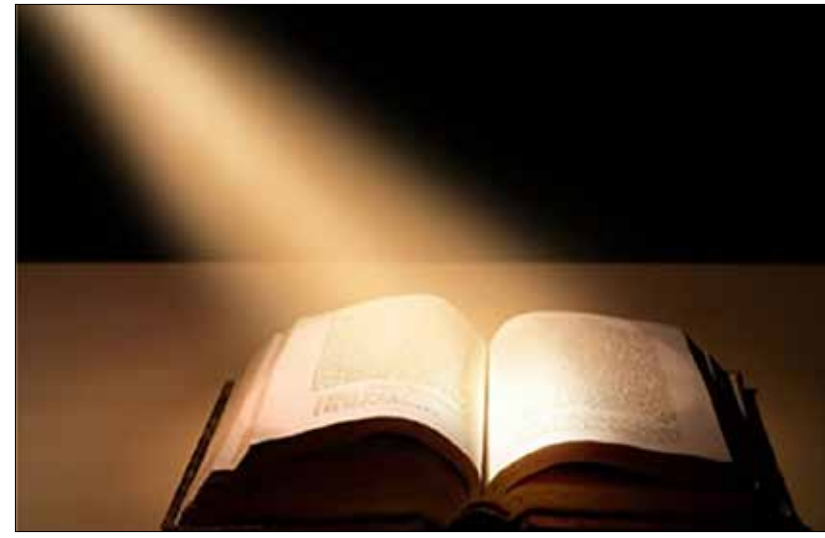
칼빈(Calvin)은 바른 신학(神學) 운동이 종교적 체험(體驗)이나 이성(理性)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칼빈의 '오직

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權能)의 숨결이 담겨 있는 존재로 이해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들으며 노래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했다.

청교도 리처드 그린햄

청교도들이 원했던 것은 가능한 성경 속에 나타난 원리들에 적합한 교리는 물론이고 교회의 규율(規律)과 행정조직(行政組織)을 갖기 원했던 것이다” 라고 했다.

청교도들은 이처럼 오로지



성경대로 신앙 지키며 이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의무 그 대가로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대우 받는 것이라 믿어

성경' 사상은 영국과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신학적(神學的) 기초(基礎)였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지식(知識)을 얻는 원천(源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살며 호흡하면서 말씀에 수반(隨伴)되는 성령의 능력을 향유(享有)했다. 청교도들은 성경 66권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성령의 서재(書齋)로 생각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신랄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시는 보고(寶庫)로 성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과 지성(知性)을 새롭게 하며 삼

(Richard Greenham, 1542-1594)은 성경을 읽는 여덟 가지 방법으로 1)부지런함 2)지혜 3)준비 4)속고 5)협약과 나눔 6)믿음 7)실천 그리고 8)기도를 제시했다.

토머스 왓슨(Thomas Watson, 1620-1686)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한 지침(指針)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을 말했다. “1)거룩한 소욕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것 2)주의를 기울이며 말씀 아래 앉을 것 3)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것 4)믿음을 말씀에 화합시킬 것 5)말씀을 담은 채로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 그리고 6)다른 이들에게 말씀에 대해 전할 것.”

헤른(James Heron, D.D)은 “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위(權威)가 온전케 드러났다. 그렇다. 그들은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 1899-1981)의 말처럼 “청교도들은 언제나 신약(新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샘슨(Dr. Thomas Sampson)은 청교도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정당하게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교리(教理)와 생활(生活)을 지닌 형제들이었다.”

또한 라이큰(Leland Ryken)도 이렇게 말했다. “청교도들은 이 세상의 성자들(Worldly

남과 서로에게 완전히 복종(服從)하라는 강력한 권고(勸告)를 받았다.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重要)시 되는 단어는 '의무'(義務)라는 단어였다. 성경도들은 그들의 의무가 성경의 내용대로 순수(純粹)한 신앙을 지키며 이것을 세상에 전파(傳播)하는 것이요 그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청교도들은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리처드 백스터의 '그리스도인의 지침'은 청교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신뢰할 만한 안내서(案内書)로 삼았는지를 보여 준다.

헨리 스미스(Henry Smith, 1560-1591)는 말했다. “우리

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嚴守)해야 할 규칙처럼 놓아두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오직 신뢰(信賴)함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규정(規定)하는 것만을 사랑해야 하며, 성경이 금지(禁止)하는 것만을 미워하고 성경이 명(命)하는 것만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신앙이 가정과 교회에서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실현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싸웠던 것이다.

청교도들은 구체적인 죄(罪)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즉 죄에 대한 각성(覺醒)을 일으키는 질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탁월(卓越)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막대기를 들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이 숨어 있는 답불을 찾고 헤쳐 나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서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위로(慰勞)와 평안(平安)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적(靈的)인 성장(成長)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수풀 속에 숨으려 하는 존재(存在)들이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불러 나아가 “우리의 결산(決算)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

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기”(히4:13) 위해서는 매일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청교도 목회자(牧會者)들은 설교에서 공통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순종(順從)과 충성(忠誠)을 강조했으며 양떼들에게 신앙과 의무(義務)를 이행하라고 선포(宣布)했다. 즉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무로 삼았던 것들은 성수주일, 예배, 기도, 찬양, 선행 등등... 경건한 거룩한 삶이었다. 이렇게 청교도(淸教徒)들은 교회(教會)와 가정(家政)에서 교회의 삶의 의무(義務)를 실제적으로 강조(強調)하였다.

kimjohy@hot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featuring a large image of angels and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김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예장고신 “전광훈, 이단성 있다”

이단대책위 보고서…한기총도 이단옹호단체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결론 내렸다. 한국교회 공교단의 이대위가 전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19일 입수한 예장고신 이대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예장고신 총회는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 여부를 이대위에 맡겨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제70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는 이단옹호자로 규정된다.

이대위는 “전 목사의 정치적 행동은 찬반이 엇갈린다”며 “본 보고서에는 그의 신앙과 신학적 사실만 다룬다”고 적시했다. 이대위는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해설서다” 등 전 목사의 문제제 발언을 열거한 뒤 “전 목사

는 성경 66권의 정통신학인 유기적 완전성을 부정했다. 성경 66권의 정경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는 직통계시 및 불건전 신앙의 사실화(잘못된 신앙을 가르침)를 주장했으며 성경의 성령론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 반송우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대위는 전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결론 내린 결정적 이유로 한기총 대표로 있던 2019년 변씨에 대

“‘성도 자신이 곧 한국교회’ 인식 갖고 솔선”

예장합동, 코로나19 사태 입장과 산하교회 대응 지침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이 19일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과 산하교회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담화문에서 김중준 총회장은 “향후 2주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 달라”며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교역자 장로 교회직원 기타 필요 요원은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 내 일체의 소모임과 여름행사, 식사, 친교 모임은 중지하고 비대면 방식을 모

한 이단 해제를 결의한 것을 꼽았다. 이대위는 “한기총은 2019년 3월 6일 변씨를 이단 해제했다”며 “당시 보고자 정동섭 목사의 주장에 근거해 이단해제를 했는데, 후에 정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보고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위는 전 목사가 변씨를 한기총 공동회장까지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한기총 역시 이단옹호 단체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한기총의 활동 시역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요 총회가 이단 및 불건전 단체들로 규정해 참여 금지한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해제 및 영입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회장은 또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곧 한국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솔선하여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 환자과 환자의 가족들, 희생자들,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차별 행정권을 발휘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전국 317개 대학 교수 1857명 성명 발표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교수모임과 동성애동성혼합법반대 전국교수연합(동남교연)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동성애와 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을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과 동남교연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표현의 자유시장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 사유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비판할 경우 이를 행하는 사람들을 반대, 비판한 것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한다”면서 “이로써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특정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

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을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가처분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도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 사유 지지자들이 반대 가치관 표현자들을 법적으로 몰아 민사, 행정, 형사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한민국은 그 규모를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관 갈등과 법적 분쟁의 폭발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국민의 입을 막고 심지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몰아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교회 벗어나 사회적 논의로”

기성, 온라인생중계 토론회 열고 법률·신학적 문제 다각도 조망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한기재 목사)가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열고 차금법의 실체와 한계, 법률·신학적 문제를 다각도로 조망했다. 기성은 지난 13일 임원회에서 차금법을 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를 발족했다.

기성 부총회장인 지형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차금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별에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지향 역시 일반적 이성애 외에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했다.

발제자인 김광수 서울 행복한교회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 간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지나치게 피해자 중심인 것도 차금법의 맹점이다. 누군가 피해를 주장하면 가해자가 대응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김 목사는 “차금법에서는 피해 여부를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차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 위원은 차금법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 10년째 내리막길

작년 12월 기준 250만6985명...다음세대 ‘절벽’ 심각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이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전체 교인 수 통계에서 10년째 정체 혹은 내림세가 지속했다. 자립 대상(미자립) 교회는 최근 10년 새 1000여곳이 늘었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교세 통계 취합 결과, 전체 교인 수가 250만6985명을 기록해 2018년 255만4227명보다 4만7242명(1.85%)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6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4년엔 281만574명으로 1년 전보다 1000여명이 늘어 잠깐 반등했다가 이후엔 계속해서 수만명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과 함께 한국교회 성도 수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교회들이 통일된 양식에 맞춰 인원수 및

예·결산액을 보고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통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교인 수가 줄고 있지만, 교회·목사·장로의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교회 수는 지난해보다 98곳 늘어난 9288곳, 목사 수는 289명 증가한 2만775명, 장로 수도 238명 증가한 3만251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회의 손발인 서리집사 수는 전년대보다 8525명 줄어든 58만1000명을 기록했다. 교회와 목회자·장로는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반면 일반성도와 서리집사수가 줄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세대 감소 현상도 심각하다.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교는 2010년 18만8304명에서 지난해 11만5025명으로 7만여명 줄어 들었다. 초·중·고등학교를 합치면 역시 10년간 8만여명이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에 입시 부담에 따른 교회

출석 기피 현상이 겹친 결과다.

도움이 필요한 자립 대상 교회는 총 3420곳으로 기록돼 전체의 36.8%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2415곳에 비해 1000곳 이상 늘었다. 일반적으로 자립 대상 교회는 전년대 결산액을 기준으로 놓여준 교회는 2000만원, 중소도시 교회는 2500만원, 대도시 교회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보통 목회자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를 뜻한다.

예장통합 교세 통계의 경우 신고하는 목회자가 스스로 자립 대상인지 아닌지를 표기하는 방식이기에 실제 노획의 지원은 받는 교회 숫자와는 차이가 난다.

총회 동능사회복지 관계자는 “농어촌보다는 도시의 자립 대상 교회들을 중심으로 10년간 100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런 통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는 올해 말엔 더 많은 자립 대상 교회들이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C&MA 한국총회 목사 8명 배출

제3회 목사안수식, “땅 끝까지 복음을”

선교 중심 교단 얼라이언스 한국총회(Alliance Church in Korea ACK·총회장 문형준 목사)가 지난 15일 경기도 양평 웨르블 리조트 대안회관에서 제3회 목사안수식을 열고 8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다.

사무총장 신다윗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안수식에서는 김진희 나수경 신동환 이현아 채수희 최대원 최민승 최숙자 씨가 안수를 받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목회자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했다. 안수 대상자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거듭나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종된 목회자가 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안수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례를 베풀었으며, 신임 목사의 멘토가 성의를 입혀주며 성직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신임 목사들은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뿐만 아니라 미국 C&MA와 얼라이언스 세계연대(AWF) 등에서도 동일하게 목사로 인정받게 된다.

총회장 문형준 목사는 “오늘 안수를 받는 목사들은 물과 꿀이 풍성한 목양지를 만들 책임이 주어졌다”면서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자라고

성도들에게 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축사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이 분명해야 목회자가 행복할 수 있다”며 “목사직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윤석 목사, 김길(C&MA 전 감독) 목사, 심종환(한국총회 부회장) 목사 등이 축사와 권면을 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도은혜, 성악가 강성근 손정아 씨가 축가를 불렀다.

2018년 선교 연합체 성격의 교단으로 발족한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얼라이언스 세계연대(Alliance World Fellowship, AWF)’로 연결돼 있다. 미국 C&MA 교단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에 2500여 교회와 50만 성도가 소속돼 있으며, 세계 53개국에 12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특히 발리 그레이엄 목사가 소속된 교단으로 유명하며, 미국 나약대학교(Nyac, NY), 심슨대학교(Reading, CA), 크라운대학교(St. Paul, MN) 등이 얼라이언스 계열 대학이다. 한국총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협력하며 국내외 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역자 과정(MSP)과 총회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랜선 여름수련회’ 는 뜨거웠다

CCC, 온라인 2020년 다음세대 여름수련회

기독교 학생과 청년들은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과 학교 생활, 졸업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목장경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높여 각자의 비전과 이 땅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을 이들도 있다. 이들 다음세대가 어

려운 현상황에 굴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 모였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18-20일 ‘믿음이 이긴다’(롬8:37)를 주제로 ‘CCC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학생신앙운동(SFC·대표 허태영 목사)은 19일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후4:7)를 주제로 ‘SFC방구 석수련회’를 시작해 21일까지 진

“낙태허용 입법화 추진...살인 합법화”

42개 시민단체 장관 사퇴 촉구... ‘한국프로라이프연대’ 결성

정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중단과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종교·학부·여성 단체가 참여한 42개 시민단체는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낙태 전면 허용 입법화 추진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대다수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임시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주수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주수에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 7개 국가에선

무분별하게 낙태하지 않도록 낙태숙려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술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1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소중하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폐지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주수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주수에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 7개 국가에선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청년여성연합 회원인 최다솔씨도 이날 발언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태아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남녀의 무책임한 방종으로 만들어진 태아라도 생명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연 건강간호학회복원연구소장은 “생명에 대한 경의감 없이 낙태가 자연스러운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면서 “주장권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형법을 수립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조만간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한국프로라이프연대’를 결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기선교, 현지선교 재정지원 등 대안 모색

미션파트너스, ‘코로나시대와...’ 온라인 설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교회의 해외 단기선교 계획이 대부분 취소되자 국내에서 대안적 선교활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교교육단체 미션파트너스 소속 21세기단기선교위원회는 ‘코로나 시대와 단기선교’를 주제로 지난 8-16일 구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성도와 목회자,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 구분해 조사했다. 응답자 398명 중 성도는 220명(55.3%), 목회자·선교담당자와 선교사는 각각 81명과 97명이었다.

“올여름 단기선교 계획은 코로

나19로 어떻게 됐나’는 질문에 성도 중 14%(31명)가 선교사 재정 지원, 귀국 선교사와 국내 이주민자 국내에서 대안적 선교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65%(139명)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해외 단기선교 계획이 취소됐다고 했다. 목회자 72%도 준비하던 여름 단기사역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올해 단기선교 계획 자체가 없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

성도와 목회자는 해외 단기선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교회 해외 단기선교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성도들은 ‘우리 중심의 선교와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면서 “예수를 선택한 믿음의 삶을 살아 각자의 삶이 의미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CCC 청년들은 19일 성경적 세계관, 결혼과 가정, 문화, 변증, 상담과 치유, 선교, 직업 등 11개 분야로 구성된 ‘선택 특강’을 들으며 각자의 관심사에 어떻게 성경적인 시각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패턴의 선교’를 각각 33%씩 꼽았다. 목회자도 우리 중심의 선교(37%)가 문제라고 답했고 같은 패턴의 선교(36%)가 뒤를 이었다.

새로운 단기선교 모델로 성도(38%)와 목회자(30%)는 ‘국내 이주민 사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온라인 등을 이용한 창의적인 선교 방법을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단기선교 외에도 선교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해 지원(49%)하고 선교적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주민 사역을 진행(26%)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션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는 24일 ‘설문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온라인 포럼에서 단기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CC 소속 간사들은 올 상반기 집단 모임과 예배가 어려워진 가운데 20여개 도시에서 흩어진 소속 청년들을 직접 찾았다. 소그룹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할 청년들을 보듬었다. 이들은 모두 13만km를 달렸다. 서울과 부산을 163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19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 SFC 수련회에는 전국 중·고등학생과 청년 800여명이 SFC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함께 예배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2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4. 하박국-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님께 등을 돌린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 침략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박국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또한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것인지 기록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음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합 3:16-19).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동시에 재앙이 오고 있는 것도 알았다. 그는 고난의 시기에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찬양했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화를 내는 때가 아니라 자비, 긍휼을 바라며 주님께 돌아갈 때인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도: “주님, 제가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가 죄를 범하고 그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저를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고

난 평강이 있었지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단4:1-3).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하였다. 느부갓네살왕은 풍요로웠다. 그 때 그는 꿈을 꾸었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변민하였노라”(단4:4-

간4:28-34).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한다. 왕은 당장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연유가 자신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가 회개하고 난 후야 하나님은 왕이 잃었던 것을 되돌려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한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 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찬양 드리기보다는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혹여 그리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것은 저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제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변화해야 한다면 제게 보여주시어 회개하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

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단4:28-34).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에 봉착한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 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찬양 드리기보다는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혹여 그리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것은 저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제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변화해야 한다면 제게 보여주시어 회개하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yonghui.mcdonald@gmail.com

고난의 시기에도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알고 하나님 찬양...

5).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순종하라고 전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왕위에서 내쳐질 것이며, 마침내는 들짐승처럼 먹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단4:19-27).

5. 느부갓네살 - 교만한 태도로 화를 부르다

성경은 말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내에서 구하시어 저를 들어 올리시는 당신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의 영에 사로잡혔다. 다니엘이 적기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

선교 펴기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현지소식

아르헨티나는 자가 격리 기간이 15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2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진정되기 보다는 더욱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초기 대응을 잘 함으로 해서 중남미의 타국가보다 확진자의 숫자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국민들의 필요도가 높아지면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멀리하고 자가격리를 불이행함으로써 현재 매일 확진자의 숫자가 7000-8000명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8200명을 기록하고 전체 누적 확진자가 3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20일부터 무려 5개월 동안 자가

격리와 이동제한과 모든 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과 상업과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상점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실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문제지만 당장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강력 총기 강도 사건, 절도, 납치 도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시위와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치안부재의 현실 앞에 국민들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루속히 이 땅에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 사역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종교 활동과 예배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회는 20%정도가 자체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80% 정도는 소규모 교회들입니다. 또한 자체 건물 보다는 월세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사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교회를 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교회도 재정적인 문

제가 총당이 되지 않아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지교회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성도들의 헌신도가 높지 않고 심일조와 헌금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들이 항상 재정적으



잠바와 위생품을 전달받은 아동들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걸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Covid-19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와 교사 모임, 스태프 모임과 포럼모사 선교지의 사역자 모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역을 대면사역으로 하였으나 Covid-19 이후에 사역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

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종교 행사와 모임제한, 그리고 이동 제한 등으로 사역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온라인 사역이 아직까지 서툴고 배워가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원 사역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초기에는 통제가 잘되었으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정부도 통제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필요도와 반발이 심해지자 한 단계를 낮춰서 완화 정책을 2주간 펼쳤으나 오히려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8200명이며 누적 확진자의 숫자가 32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부에노스 주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 2차 위생용품 (알코올겔, 마스크, 비누, 소독약, 치약, 치솔)을 200가정에 전달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을 맞이해서 50명의 아동들에게 잠바와 운동화를 전달해주었



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아동 10명당 8명의 아동들이 극빈자로 전환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극빈 아동의 숫자가 8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진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린이들이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더 이상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아르헨티나



기도제목

1. 이 땅에 하루속히 Covid-19 재앙이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예배 드릴수 있도록
2. 어린이 사역을 위한 장소를 위해서
3. 각 선교 현장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4. 온라인 사역(예배, 교사 교육, 사역자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5. 선교사들의 영육 간에 건강을 위해서

장영호 선교사 드림
luis-chang@hanmail.net

“인권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 北 억류 6명 송환 촉구

세이브식스코리아운동본부,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세이브식스코리아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서울 신촌 연세로 유폐레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북한에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56) 김국기(66) 최춘길(61)씨,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민 3명은 중국 당동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 컴퓨터와 대북지원용 곡수 공장을 운영하며 동포를 사랑한 사 람들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6년 8개월째 장기 억류 중이다.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5년 넘게 억류돼 있다. 이들 세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다. 탈북민 3명은 2016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다. 운동본부는 “남북관계에 전 세계가 집중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은 모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자 국민 송환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송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인권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비판했다. 또 억류자 6명의 생사확인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올해 안에 송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청와대 청원과 국제 서명운동,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미션라이프)

11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줌으로

(10면에서 계속) 뉴저지실버선교회의 3가지 목회인 스토리 족속을 예수께 △내 생애 다하기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소개했다. 대표 양춘길 목사는 “실버선교회는 은퇴 후에 남은 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사도 바울 같이 핏대가 하나님나라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지고, 그것을 위해 믿음의 마지막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삶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버선교회는 뉴욕에 1년 앞서 2002년 뉴저지에서 양춘길 목사의 발의로 9월에 시작됐다. 33번의 선교훈련을 통해 782명을 회원으로 배출했으며, 34명의 실버선교사들이 세계각처에서 사역하고 있다. 첫날 박동진 목사(CRM 한국 대표)는 “지도자의 계발”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인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다(왕하7:9-15)

하나님께서 네 문둥병자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문둥병자들의 뉘우침과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잘 살면 되겠느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뉘우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하면서 그 밤에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진

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해 부자가 됐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이 좋은 소식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화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왕하7:16-20)

고운가루 한 스아 보리 두 스아가 한세겔이라는 뜻은 너무나도 귀중한 식량을 헐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모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와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된 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놀라

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불신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처럼 눈앞에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보고도 결국 밝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음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수 거할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왕하8:1)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감격시켰던 수넬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해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4장 38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전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목할 것은 "네 권속"이라는 단어인

데 이 말은 수넬여인이 책임져야 하는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이 많이 들어 죽은 후 모든 권속을 수넬여인이 책임져야 하는 때 7년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가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성도를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목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왕하8:2-29)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니 그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7년 기근을 알려주셔서 수넬여인이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수넬여인과 온 가족들이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우거하는데 당시 블레셋은 유다의 남서쪽에 있고 강우량이 적절해서 농사짓기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남편은

없고 그 땅과 집을 다 놔두고 이방나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지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블레셋에 거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이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금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왕하8:3-6)

수넬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집과 전토를 놔두고 간 것을 찾으러 왕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땅을 돌려받겠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왕과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 가 바로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하시가 놀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관리자에게 명

해 모든 것을 다 주고 이제까지 얻었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수넬여인이 왕에게 갔을 그 때 왕과 계하시 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 여호와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왕하8:7-9)

본문은 들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벤하닷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의 군대 장관 하사엘을 보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엘리사에게 여쭙보려고 오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엘리사가 이방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문이 금방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 왕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수도 없이 이스

라엘을 침범해 괴롭히던 왕이었는데 병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수많은 예물을 갖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한 사람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모습을 통해 이방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2)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기 속에 성장하는 신앙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증거 해준다. 혹시 의문이 생긴다면 잠시 손을 놓고 각자의 과거를 되돌아보라. 언제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내가 목격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했을 때 나의 영성이 그만큼 발전되었던가? 아니면 위기를 맞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이러니하게 평안할 때 믿음은 자라지 않은 법이다. 생활이 좀 나아지고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생각할 때 영성은 식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곤 하지 않았던가? 다윗이 조금 여유를 부릴 때 그는 간음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여 배가 따스할 때 그들은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된다. 최고의 왕 솔로몬의 신앙은 과연 그의 지혜와 권세만큼 강력

지난 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자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엄청난 변화 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적, 인적 환경 속에 자라가는 코비드세대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교육 역시 코로나 이전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러면 코비드세대에게 적합한 교회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코비드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도표 참조).

첫째, 교회교육은 구속지향적인 방향을 지녀야 한다. 코로나라는 트라우마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근본문제를 되묻게 하였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은 성인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묻게 되는 질문이다. 따라

구속지향적 방향으로, 성경공부가 삶의 변화 이끌도록 가정과 연계, 사회적 정서적 자질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는가? 아니다. 믿음은 고통 중에 성장하고 힘든 여정 속에 자라게 된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니 아니니 하는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의 위기가 신앙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코로나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듣고 있다. 비록 지금은 예전에 비해 얇아지고,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서 아이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결국 우리가 겪는 코로나는 위기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닐까? 실제로 지난 5월 시카고 대학에서 미국인 85,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코로나가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들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르쳐야 하고 이들이 믿음의 성숙과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교육이 기능해야 한다. 어떻게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서 코로나사태를 통해 교회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죄, 그리고 구속의 역사에 대해 의미 있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보통 4가지 질문을 아이들에게 묻고 함께 답을 모색한다.

4가지 물음이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또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교회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구속적 계획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이들 각자에게 사명감을 주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성경공부가 삶의 변화를 이끌도록 기획/운영되어야 한다. 일찍이 켄 햄(Ken Ham)이라는 성경학자(Already Gone의 저자)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로, 교회가 성경을 도덕, 윤리교과서로 취급하여 선악에 대한 관념을 심어줄 뿐 이를 삶 속에 체화시키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견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성경을 읽는데 변화는 없는 삶, 머리는 크지만 사회적 미숙아를 양산시키는 교회,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문제해결력이 떨어지는 삶!

(15면으로 계속)

코로나 세대를 위한 4가지 교회교육의 원칙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퍼드 애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선교 소식

웨이스선교회

웨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8월 9일 오후 8시 각 나라 선교사들과 줌으로 대면하며 선교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선교회 중점사역인 세계 가정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 선교사들은 ZOOM을 통해 선교소식과 코로나19 상황을 나눴다.

켄케더린 목사(사무총장) 사회로 환영인 선교사(엘살바도르) 기도, 전희수 목사(회장) 인사말로 시작해 각 나라별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파라과이 이명화 김기석 선교사, 엘살바도르1 황은숙 황영진 선교사, 엘살바도르2 조정연 순. 선교사, 과테말라 박윤정 장경순 선교사,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네팔 새빛들이 Shanta, 대구 신동숙 원장 김삼수 목사 등이다.

(기사제공: 웨이스선교회)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5.가정 천국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지만 실은 결혼 이후에 더 많은 불행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위한 결혼이 불행을 위한 결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원래 남남이 만나 같듯하면서 사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같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같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같등을 서로 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되고, 후회는 실망을

저절로 부모가 된 것입니다. 고달픈 부모로서의 인생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첫아이를 키울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아빠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엄마들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행동합니다. 다행히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부모 노릇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어그러진 부모의 모

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린 여인들, 자신의 존재조차 잊어 버리고 사는 여성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학교는 여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드립니다.

행복한 부부, 자녀에 대한 좋은 부모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부부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려고 가정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버지 어머니 노릇 자기부모의 그릇된 모습 답습할 때 피해자는 자녀

놓고, 실망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이 너무 서툴립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사랑하는 기술도 서툴습니다. 마음에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대화법이 서툴러서 오해를 낳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 결과 사랑은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려면 나는 서슴없이 아버지 어머니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녀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지만, 사실 자식 노릇보다 부모 노릇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부모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숨을 보고 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올바른 역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됨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모의 그릇된 모습을 답습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아버지학교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어머니 학교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참석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부모 노릇하는 법을 배웁시다.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자녀들에 대하여 결산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고 외치는 아버지들의 소리가 가정 을 천국으로 만들고

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해야 하고,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가정이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는 각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부부와 부모자녀의 관계는 불행해지고,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가정선교를 통하여 부부간 부모자식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복음화 될 때 행복한 부부, 좋은 부모, 진정한 축복의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COVID-19 세대를...

(14면에서 계속)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공부 시간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을 달달 외우면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왜 그런가? 바로 성경이 삶에 적용 되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삶의 적용을 늘 강조하셨음을 기억하자.

셋째, 교회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자질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자. 코로나로 교실에서 대면교육이 폐쇄되자 교육당국에서 가장 걱정된 것이 아이들의 정서/사회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였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이 매일 시달되었다. 왜 그런가? 교육은 지적 함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지혜(지적 성장)와 키(신체적 성

장)가 자라가며 하나님(영적 성장)과 사람(사회적/정서적 성장)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다(눅2:52)고 하시지 않았던가? 교육은 함께 어울리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연계되는 교회교육의 중요성은 특히 코로나시대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고, 모든 활동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 또한 위기이자 기회의 요인이 되었다. 위기라 하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세대간 불협화음으로 으르렁대며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심지어는 자살율이 높아진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바로 가정제단을 함께 쌓고 부모와 자식간, 남편과 아내간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결과도 있다. 코로나시대 교회는 가정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hlee0414@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모두 거짓말을 한다, 침묵, 말그릇,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두란노서원 213-382-5400, 말씀사 714-530-2211, 베틀서적 949-854-9191, www.koramdeo.com, www.duranno.us, www.lifebook.co.kr, bethelbook@hotmail.com, 북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떠나지 않아도 휴가 즐길 수 있다!

BBC, 코로나19시대에 누릴 수 있는 성공적 “스테이케이션” 지침 소개

집에서 즐기는 휴가라는 의미의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행업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놓기 전부터 이미 유행하고 있었다. 소비자 사기관 민텔의 선임 여행애널리스트 말로 드 브리스는 BBC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반경을 좁히는 방식으로 휴가비용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해야 할 일 목록’ 같은 건 잊어라

시장조사 회사인 포커스라이프의 여행 애널리스트이자 ‘위크-라이프 밸런스’ 코치 클라우디아 영거는 온전한 휴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BBC에 일상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당신이 다른 곳으로 휴가를 떠났다면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테이케이션을 즐길 때도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자.

‘내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라

샌디에고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며 자기개발에 대한 글을 쓰는 레나 슈미츠는 여행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휴가를 즐길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권한다.

핸드폰 자체를 끄거나 적어도 알림을 끈 상태로, 업무 이메일에는 부재중 알림메일을 설정한

뒤 습관적으로 메일함을 체크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음악이나 팟캐스트 청취 또는 그동안 놓친 죄에 프로그램 시청 등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영거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라

당신이 도시에 살고 있든 시골에 있든, 대부분이 그렇듯 습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간단한 행동으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주목하곤 한다. 가령, 늘 가던 식당에 가더라도 다른 자리에 앉아본다거나, 늘 가는 장소라도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이다.

영거는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한층 더 깨어있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 그대로 순간을 사세요,

특히 코로나19로 새로운 위생관념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규칙이 소개되고 여전히 국경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나라들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올해 스테이케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당신의 성공적인 스테이케이션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Some tips for your successful staycation).

오직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자신을 돌보라

자신을 보살피는 일은 스트레스 해소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슈미츠씨 역시 이에 동의하며 “본인 스스로를 가꾸는 일은 스트레스 관리에 최고의 명



할 일 목록 없애고 내 시간, 나를 최우선으로 습관에서 벗어나 주변 둘러보고 예산 세우기

약”이라고 말했다.

집에 욕조가 있다면, 온갖 귀한 목욕용품을 풀어놓고 자신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시간을 즐겨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슈미츠는 여기엔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자연환경을

즐기는 것이 똑같은 재충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케이션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Money)란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로리 켈벤은 “스테이케이션 중에도 다른 곳에서 휴가를 즐길 때같이 외식을 하라”고 권한다.

요리를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면, 쉬는 동안에는 완전히 요리에 자유로워지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는 자주 접할 수 없던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온갖 정성을 들인 음식을 준비해보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캠핑하는 또, 새로운 장소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실례는 마음으로 새 옷을 장만하듯 자신

해보는 건 어떨까? 슈미츠는 “평소에 정말 가보고 싶었던 식당들을 예약하고, 매일 한두 군데 정도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한 다음, 아침저녁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동네를 탐색해볼 것”을 추천한다.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집안에서 캠핑을 시도해볼 수도 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거실에 있는 가구들을 치우고 매트리스를 펴는 ‘모험’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또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처럼 담요를 가지고 그림자놀이를 하며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당신이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하던지 시간은 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이렇게 귀한 시간을 평평 쓰는 것이 어찌면 가장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너무 뻘뻘하게 스케줄을 잡는 대신 느린 하루를 살아보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잡아보는 것도 좋다.

영거는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따른다고 그 방식이 내게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된다”는 충고를 전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는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 결정하자.

만약 올해는 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도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휴가계획을 절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더 충분한 휴식을 누리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에게 새 옷들을 선물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캥스나 실내에서 캠핑을 즐겨라

만약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예산에 맞는 호텔을 예약

굿위드머니(Good With

건강 길라잡이



이명직

내과전문의

통풍

요산 결정체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심한 염증

예전에는 ‘황제의 병’이라고 했던 통풍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늘것 술을 마실 수 있던 귀족 계층에서 흔했다고

한다. 요즘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서도 통풍을 흔히 볼 수 있다. 통풍에 의하면 미국

인의 약 1%가 통풍을 앓고 있다. 특히 40세-50세 남성에서 흔하고 여성에게는 드문 질병이다.

-개인 사업을 하는 50대 초반의 전 모 씨는 밤에 잠을 자다가 발가락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부어있었다. 간밤에 한국에서 온 고등학교 동창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취기에 발가락을 다쳤다고 생각하고 약장 속에 있던 타이레놀 두 알을 꺼내 삼켰다. 하지만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져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결

국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찾아왔다. 전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았지만 약물로 잘 조절되었고 고지혈증으로 2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술은 가끔 마시는데 한번 마시면 과음하는 편이다. 운동은 평소에 열심히 했지만 육식을 즐겼다. 검진상 전 씨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상단부가 심하게 부어있었으며 열이 많이 났고 만질 때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엑스선 검사상 골절은 없었다. 전 씨는 통풍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통풍에 관한 약을 처방 받았다. 전 씨의 증상은 즉시 호전이 되었고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전씨는 혈액검사서

혈중 요산 농도가 높게 나왔고 이에 따라 예방 목적으로 통풍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받았다. -

통풍이 생기는 원리는 혈중 요산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을 때 요산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혈액속의 백혈구에 이 결정체가 반응하면서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문에 관절이 붓고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족관절 등인데 드물게 무릎관절에 생기기도 하고 신장이나 요로 부위 요산이 침착해서 요로 결석을 만들기도 한다.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요산은 퓨린이 많이 함유

된 음식(동물의 내장이나 청어,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생성될 수 있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따라서 음식 조절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신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통풍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통풍이 재발해서 관절에 큰 결절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기 치료로 이런 환자를 거의 볼 수 없다. 통풍 증상이 의심될 때는 빨리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뉴 패러다임 목회와 선교를 위한

Dynamic pastoral leadership

목사, 선교사를 위한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60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usa@midwest.edu



usa@midwest.edu